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2022. 12.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인

〈참여연구진〉

연구수행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인
책임연구원 : 염동문
공동연구원 : 이수경, 이진향, 이철민, 정병두
발 행 처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 조사연구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한 연구진들의 의견이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출 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연구용역사업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인

<목 차>

Ⅰ. 서론 ····· 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2. 연구 범위 및 내용 ····· 5

3. 연구 방법 ····· 6

Ⅱ. 거제시 권역별 지역사회복지 현황 ····· 10

1.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검토 ····· 10

2. 제 5 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검토 ····· 27

Ⅲ. 거제시 권역별 복지욕구 조사 ····· 40

1. 권역별 복지욕구 설문조사 결과 ····· 40

2. 권역별 FGI 분석 결과 ····· 56

Ⅳ. 권역별 정책 방향 ····· 90

1. 권역별 정책 제안 기본원칙 ····· 90

2. 권역별 사회복지정책 제안 ····· 96

참고문헌 ····· 157

<표 차례>

<표 1> 연구 수행 체계 및 일정 ····· 8
<표 2> 6 개 권역별 복지관 확충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14
<표 3> 권역별 복지관 건립 로드맵 요약 ····· 15
<표 4> 권역별 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안) ····· 17
<표 5> 거제시 사회복지기관 현황 ····· 29
<표 6> 거제시 사회복지기관 제공 서비스 현황 ····· 30
<표 7>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기관 현황 ····· 31
<표 8> 아동돌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1
<표 9> 노인돌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2
<표 10> 장애인돌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3
<표 11>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4
<표 12> 기초생활유지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5
<표 13> 가족, 안전, 교육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6
<표 14> 고용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7
<표 15> 주거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8
<표 16> 법률 및 문화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49
<표 17> 주관적 경제상태 및 삶의 만족도 ····· 54
<표 18> 지역 간 불균형 ····· 55
<표 19> 권역별 사회복지정책 제안 분류표 ····· 96
<표 20> 지원주택 공급 흐름도 및 역할 ····· 123
<표 21>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목표 수준 ····· 124

<그림 차례>

[그림 1] 거제시 행정구역 현황(2019 년) ····· 10
[그림 2] 복지관 건립 종합계획도 ····· 15
[그림 3]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거제시 전체 ····· 50
[그림 4]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남부권 ····· 51
[그림 5]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동부권 ····· 51
[그림 6]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북부권 ····· 52
[그림 7]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서부권 ····· 52
[그림 8]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중부권 ····· 53
[그림 9]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의 기본 원칙 ····· 95
[그림 10]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단 조직도 ····· 104
[그림 11] 거제시건강복지센터 사업추진체계(안) ····· 115
[그림 12]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추진 체계 ····· 123
[그림 13] 거제시 가족지원센터 내 외국인노동자 지원팀 조직도(안) ···· 128
[그림 1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조직구성(안) ····· 128
[그림 15] 거제시 권익옹호 지원체계(안) ····· 143
[그림 16] 거제시 통합쉼터 지원체계(안) ····· 146
[그림 17] 거제시 중증장애인 단기돌봄체계 ····· 149
[그림 18] 산림복지 경제 체계 ····· 153
[그림 19] 산림복지 개념도 ····· 154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22년 10월 현재 거제시 인구는 237,090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거제시 2022년 10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

○ 이와 함께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인구 또한 201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권역별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부권(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이 111,864명으로 거제시 인구의 47%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동부권역(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이 33,534면(31%), 서부권역(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22,586명(10%), 북부권역(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16,639명(7%), 남부권역(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12,673명(5%)의 순으로 권역별 인구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8년 23,456명에서 2022년 30,8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도 2021년 11,27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9,153명으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처럼 거제시는 전체적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보장적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거제시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취약계층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

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제시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읍면동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다문화가정 및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86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고현동이 위치한 중부권역에 69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연초면, 장승포동 소재의 복지시설은 다소 많으나, 둔덕면, 남부면, 장목면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읍면동 간 또는 권역 간 복지시설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편중된 제공과 서비스에서의 소외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사회보장은 국가 단위의 역할이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국가 단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임

○ 이에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는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은 거제시 전체 단위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거제시의 동 지역과 면 지역 간 인구수, 주요 서비스 대상자의 분포, 사회복지시설의 분포, 요구 서비스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함

○ 즉, 동 지역과 읍 지역 등 권역이 갖는 지리적 특성과 주민들 욕구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거제시의 우수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권역별・부분별로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전략들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사회단체, 시민단체, 주민참여연구단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분야 전문가와 주민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들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함.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배제되는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에 거제시를 5개 생활권역(중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수요 및 자원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회복지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활용하여 5개 권역별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중요 욕구를 추출하고, 이를 심층 면담을 통해 권역 및 거제시의 중요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해 내고자 함

○ 5개 권역은 중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그리고 북부권역으로 구분됨. 구체적으로 중부권역은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이 포함되고, 동부권역은 옥포1동, 옥포2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서부권역은 사등면, 둔덕면, 거제면, 남부권역은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그리고 북부권역은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이 포함됨

2. 연구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는 거제시 권역별 복지자원 및 복지 욕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권역별 거제 주민의 복지수준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 거제시 지역사회 현황을 5개 권역별로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근 발간된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5개 권역별로 재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거제시 권역별 조사를 데이터 분석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거제시 지역주민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 주민 대상 욕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사회복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 지역보장협의체 회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로, FGI를 5개 권역별로 각 1회 실시하였음.
- FGI 결과 분석에 대한 1차 작업 후 연구자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관계자, 사회복지 실무자 등이 함께 의견교환 및 심층 논의를 통해 5개 권역별 필요 정책들을 도출해 내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거제시 지역사회복지 현황을 파악을 위한 문헌 재분석, 설문 분석 결과, 그리고 FGI 결과를 바탕으로 거제시 5권역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음. 거제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의 충실도, 객관성과 타당성, 연구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3. 연구 방법

1) 문헌 재조사(재분석)

○ 본 연구의 기본적 틀 구성을 위해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및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방향 및 추진정책 등을 권역별로 재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실행 전략을 도출하였음. 재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최근(2020년 9월)에 나온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임

2) 양적 조사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제5기 경상남도 지역주민 요구조사” 자료임

○ 이 조사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무작위 추출하여 집계구 방식을 활용한 6,00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그 중 거제시에 해당되는 360가구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음

○ 설문은 가구주 및 배우자를 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구체적 조사 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사회보장 관련 욕구(13개 영역), 정책 시급성 및 노력 체감도, 생활여건 및 지역 불균형, 코로나 19와 생활변화에 관한 것을 기초로 하여 각 시·군 특성을 반영한 추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거제시 권역별로 주민 욕구를 분석하였음

3) 질적 조사

○ 기존 문헌분석 및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권역별 사회복지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인 민간 및 공공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각 6명으로 구성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FGI 면담 시간과 장소는 면담 참여자와의 연락을 통해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로 확정하였으며, 모든 면담에는 면담자(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를 주축으로 녹음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획득하면서 진행하였음

○ 면담에 앞서 대략적인 질문지를 참여자에 전달하였고,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4) 연구수행 체계 및 일정

○ 본 연구의 수행 체계 및 일정은 아래와 같음

<표 1> 연구 수행 체계 및 일정

연구방향 설정	•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협의 • 세부 연구계획 수립
⇓	
거제시 현황분석 (재분석)	• 거제시 현황 및 정책자료 분석 -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2030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 • 거제시 권역별 주민욕구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분석
⇓	
FGI 조사 실시	• 거제시 5개 권역별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실시(5개 권역 30명)
⇓	
결과 분석 및 중간보고	• 결과 분석에 따른 내용 공유 • 쟁점 사항 및 보충 사항 확인
⇓	
최종결론 및 시사점 도출	• 조사자료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연구 결과 공유 확산을 위한 협의

○ 시간적 범위(기간) : 2022년 9월 ~ 2022년 12월(4개월)

○ 공간적 범위(대상) : 거제시

Ⅱ. 거제시 권역별 지역사회복지 현황

Ⅱ. 거제시 권역별 지역사회복지 현황

1.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검토

1) 지역 여건

(1) 지역 환경

○ 경상남도 남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면적 기준 국내 2위 도서지역

○ 총면적 402.99㎢, 9개 면과 9개 행정동으로 구성

○ 경제·지리적 독립성과 역사·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섬 지역

구분	면적(㎢)			면·동 (개)	통·리 (개)	행정구역 위치
		구성비 (%)	순위			
합계	403.23	100.0	-	18	387	
일운면	30.59	7.6	8	1	19	
동부면	52.53	13.0	1	1	18	
남부면	32.02	7.9	7	1	12	
거제면	37.32	9.3	3	1	23	
둔덕면	33.78	8.4	6	1	20	
사등면	34.87	8.6	5	1	31	
연초면	40.69	10.1	2	1	27	
하청면	29.19	7.2	9	1	27	
장목면	36.95	9.2	4	1	28	
장승포동	4.11	1.0	16	1	13	
능포동	3.45	0.9	17	1	16	
아주동	12.45	3.1	11	1	18	
옥포1동	2.15	0.5	18	1	12	
옥포2동	8.73	2.2	13	1	36	
장평동	6.97	1.7	14	1	22	
고현동	5.35	1.3	15	1	33	
상문동	20.88	5.2	10	1	17	
수양동	11.20	2.8	12	1	15	

자료 : 거제시, 2020, 「제25회 거제통계연보」

[그림 1] 거제시 행정구역 현황(2019년)

(2) 인구구조

○ 2020년 거제시의 인구 규모는 전국의 0.5%, 경남의 7.4% 차지

○ 2011년 이후 10년간 절대인구는 증가, 최근 4년간 연평균 1.13% 감소

○ 거제시의 도시화율은 81.2%로 전국(91.8%) 및 경남(86.6%) 평균 하회

○ 2020년 1인 가구 비율 29.2%로 연평균 3.2%씩 증가

○ 고령인구 증가율 경남 시군 단위 2위, 경제·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청년·향우를 대상으로 한 취농·귀농·귀향 중심 인구 대책 수립

○ 2009~2019년 인구증가의 92.8%는 자연증가, 이주는 7.2%

○ 남부·둔덕·동부면 인구감소 심각, 소멸위기 대응전략 시급

(3) 보건복지

○ 평균연령 39.7세, 65세 이상 인구 11.8%, 도내 가장 젊은 도시

○ 외국인 증가 대비 상호문화시대에 맞는 사회통합정책 개발

○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관광 서비스 제공

○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 8.4개로 경남 평균 대비 26.3% 부족

○ 복합치유시설·기술 등과 연계된 통합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5개 노인요양복지시설 이용률 98.0%

○ 마을돌봄과 결합된 빈틈없는 1:1 맞춤 지원 필요

○ 자살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보건·복지 부문의 양적 수준 및 접근성 개선 필요

2) 발전전략 도출

(1) 현황분석

고령사회

- 도심권 외 농어촌지역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진입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거제시 사회복지 시설 부족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시니어 일자리 필요

○ 가족친화

-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 및 공간 필요
- 다원화시대·상호문화시대로 전환하는 거제

○ 맞춤복지

- 빅데이터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서비스 영역 발굴 필요

○ 보건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도래를 준비하는 체계 구축
- 상급종합병원 유치 어르신 건강 강화 필요

(2) 발전방향

○ 고령사회

- 권역별 복지관 확충 등 어르신 복지 인프라 강화
- 인권보장형 치매안심마을 복지서비스 고도화
- 전문성 발휘 등 거제 특화 시니어 일자리 지원

○ 가족친화

- 미래세대의 다양한 가족 등 대비 사회적 준비
- 다양성에 기초한 소통중심의 상호존중문화 확산

○ 맞춤복지
- 빅데이터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결
- 요자 중심의 세밀한 복지체계 구축과 운영

○ 보건의료
- AI 보건소 구축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강화
- 민간 주도 의료체계 및 의료 공공성 강화

(3) 발전전략·정책과제·전략사업

○ 발전전략 : 함께 돌보는 복지, 모두 행복한 건강도시

○ 정책과제 및 전략사업

3) 전략사업 추진계획

(1) '활동하는 80세, 건강한 100세' 거제

가. 6개 권역별 복지관 확충

○ 추진 배경
- 2021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1.7%, 10년 내외로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지역 간 고령화 특성에 따른 서비스격차 해소 필요
- 베이비붐세대 은퇴 시작과 함께 고령자 계층의 다양화 및 세대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표 2> 6개 권역별 복지관 확충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정책과제	전략사업	단위사업	권역	예산(억원)
'활동하는 80세, 건강한 100세' 거제	6개 권역별 복지관 확충	권역별 복지관 건립	전체	250
	노인문화체육센터 건립	노인문화체육센터 건립	서부	260
	거제 특화 시니어 일자리 지원	거제 특화 시니어 일자리 발굴	전체	30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전체	30
	지역돌봄 치매안심마을 조성	지역돌봄 치매안심마을 조성	북부, 서부, 남부	40
	종합장사시설 건립	종합장사시설 건립	전체	185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전체	15
사회적 약자가 더 행복한 가족친화 도시	청소년 문화예술치유 허브 조성	청소년 문화예술치유허브 조성	북부	10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운영	북부	4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조성	중부	150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	전체	60
	북카페·레고블럭 문화공간 보급	'10minute 도서관' 지정	전체	12
		레고블럭 G·Function Zone	전체	45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전체	7,268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	동부	99.2
		건강가정 지원 강화	전체	9
	상호문화 활성화 지원	거제시민 상호문화 인식개선	전체	1
		산업현장 외국인 복지 강화	전체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동부	3
행복을 선물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	전체	비예산
	빅데이터 복지행정 강화	빅데이터 복지정책지도 구축	전체	3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전체	120
	1인가구 이웃돌봄 강화	1인 가구 이웃돌봄 강화	전체	30
	거제시 청년자립 지원체계 구축	거제시 청년자립 지원체계 구축	전체	기존예산
	동물매개치료센터 운영	동물매개치료센터 운영	서부	30
찾아가서 돌보는 스마트 지역의료 플랫폼	마을간 역할 분담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AI 보건소' 전환 및 AI 의료지원 플랫폼 연계 구축	전체	200
		돌봄모델별 커뮤니티케어센터 구축	전체	250
		스마트 안심케어 환경 조성	전체	1
	민간주도 공공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전체	200
	온·오프라인 지역의료플랫폼 구축	온라인 지역의료플랫폼 구축	전체	10
		의료취약지역 방문보건 확대	전체	5
		질병예방 방문건강관리 확대	전체	기존예산
	힐링 아일랜드 조성	힐링 아일랜드 조성	중부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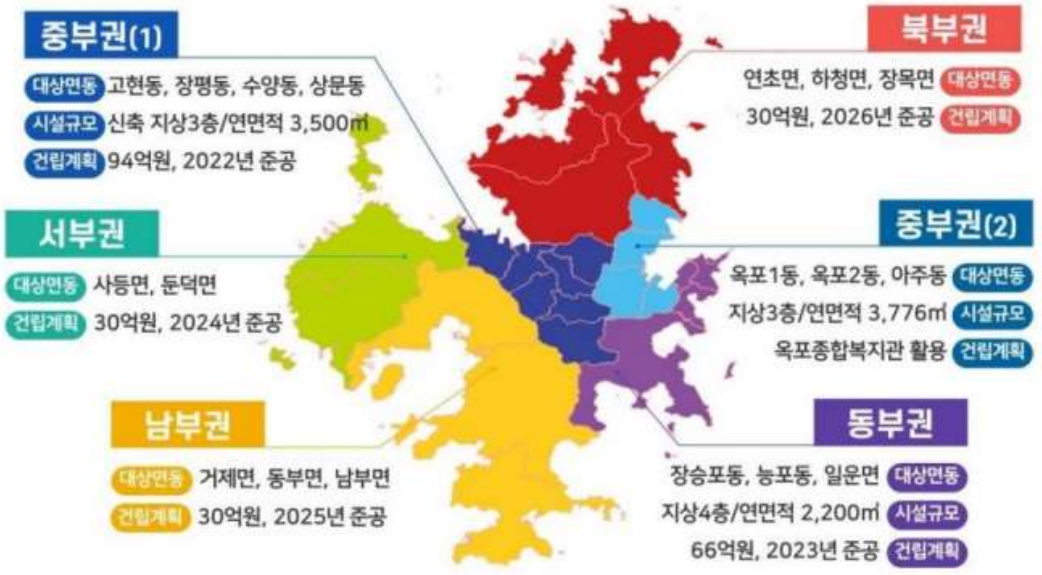
-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에 기반한 권역별 복지관 확충을 추진하여 거제시 어르신 인구 전반의 균형있는 삶의 질 제고
- 어르신세대의 생활 속 복지문화시설의 향유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어르신 세대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복지문화시설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권역별 복지관 건립

〈표 3〉 권역별 복지관 건립 로드맵 요약

권역명	면·동	추진방향	사업비(억원)	준공연도	비고
제1중부권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연계	94	2022	신축
제2중부권	옥포1동, 옥포2동, 아주동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개편			기능개편
동부권	능포동, 장승포동, 일운면	장승포동 생활SOC 복합화 연계	66	2023	신축
서부권	사등면, 둔덕면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SOC 복합화 연계	30	2024	신축
남부권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어울림센터) 연계	30	2025	신축
북부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어울림센터) 및 중장기 청사 신축계획과 연계	30	2026	신축



[그림 2] 복지관 건립 종합계획도

나. 노인문화체육센터 건립

○ 추진배경

- 2015년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거제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곧 고령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노령층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은 부족해 다각적인 SOC인프라 구축 필요
- 거제시에서 실내체육이 가능한 시설은 24곳의 경기장 중 거제국민체육센터 정도이며, 시설 이용은 경기 위주여서 일반인이나 헬스케어가 필요한 노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보건소와 통합한 다목적 어르신 문화체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실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건강증진 기여
- 노인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노령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추진

○ 주요내용

- 노인문화체육센터 건립

<표 4> 권역별 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안)

구분	대상연령	추진방향	주요프로그램
전기노인	60세~74세	전문 특성화 서비스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 생산활동 : 창업, 취업, 일자리 창출 ※ 거제형 시니어일자리 발굴 사업 연계 ※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지부 운영 ▪ 자아실현 : 재능나눔, 봉사활동
후기노인	75세이상	보편적 서비스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	▪ 건강증진, 취미여가, 정보화교육 ▪ 개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유지
전체		경로식당(급식제공), 저소득층 방문 배달서비스	

다. 거제 특화 시니어 일자리 지원

○ 추진배경

-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지만,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고, 월소득 30만원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 중요
- 삶의 만족도는 경제・사회활동인구(29.3%), 사회활동인구(22.2%), 경제활동인구(14.8%), 비활동인구(14.7%) 순으로 높았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시설 봉사, 교통 지도 같은 월소득 27만원 수준 '단기 일자리'이며, 2021년 정부 제공 80만 개 일자리 중 59만 개가 이러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분류
- 계층이 원하는 정부지원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63.6%), '취업알선'(15.3%)이 78.9%를 차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발굴・매칭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은퇴한 베이비부머나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 한국판 뉴딜 계획 등 거제시가 추진할 전략사업에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증가하고 있는 거제시 시니어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수렴하고 노인의 여건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연결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운영

○ 주요내용

- 시니어일자리지우너센터 운영

라. 지역돌봄 치매안심마을 조성

○ 추진배경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관련 서비스가 다양화되었으나 분절로 인해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마을 내에서 돌보는 커뮤니티케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거제시에서 운영 중인 율천마을, 옥산마을, 소동마을 등 6곳의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지역돌봄 치매안심마을 운영
- 장기적으로 노인 의료복지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치매안심마을에 유치하여, 인권보장형 치매안심마을의 현황과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활동 보장

○ 주요내용

- 치매안심마을(상서・율천・옥산・소동・덕곡마을 등)

(2) 사회적 약자가 더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가. 청소년 문화예술치유 허브 조성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 추진배경

- 거제시의 청소년시설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거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문제 노출
-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학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독립된 사회적 존재로써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필요

○ 추진전략 및 미래전략

- 거제시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주인이 되는 계기를 통하여 청소년의 내적 성숙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자질, 비대면 소통 능력, 사회적 협업 능력, 디지털 언어 학습, 창의적 사고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조성
-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

나. 북카페・레고블럭 문화공간 보급

○ 추진배경

- 2021년 현재 거제에는 공공도서관이 단 6곳, 총 1,688개의 좌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1개 도서관에 연 41,000여명이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설들을 활용한 공간 확보 요구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의 공간에 무인대출반납시스템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 영업시간이 아닌 유휴시간에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 독서 및 도서대여・반납 등을 할 수 있는 밀착형 도서관으로 전환
- 지역 잉여 유휴시설 및 공간을 활용해 복합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멀티 북 카페 개발 및 폐교 등 미사용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케뮤니티 공간 확대

○ 주요내용

- 10minute 도서관
- 레고블럭 G・Function Zone

다.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조성

○ 추진배경

- 거제시의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전국 0.92명, 경남 1.05명에 비해 높고 14세 미만 유소년이 인구 대비 16.7%인 41,112명에 달해 거제시 발전 방향에 반영 필요

- 거제시는 2021~2025년까지 4개 분야, 10대 과제, 137개 사업에 7,435억 원을 투입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행 중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다양한 가족 형태에 알맞은 가족상담, 가족소통, 가족교육,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간과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친화도시 기반 구축
- 경남도교육청이 지정한 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학교 밖 교육-보육-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구역을 확장해 지역 교육력 제고는 물론 ICT 업무환경 구축 등 입체적으로 생업과 보육이 지원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조성
-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
- 건강가정 지원 강화

라. 상호문화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 거제시의 등록외국인은 2019년 현재 총 8,302명으로 기업활동(13.2%), 취업(47.8%), 거주(31.5%)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추진배경 및 미래전략

- 다문화 가족도 함께 어울리는 상호문화공동체 거제를 만들기 위해 차

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상호문화 사회통합 강화

- 거제시 특성에 맞는 외국인 지원정책과 내국인과의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 정책의 각 분야 확대를 통한 상호문화 확산

○ 주요내용

- 거제시민 상호문화 인식개선
- 산업현장 외국인 복지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3) 행복을 선물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약 356종(2021년 5월 기준)으로 다양하고 판정기준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시행 필요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인 및 가구구성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안내 제공
- 수급가능한 사회보장급여를 알려주고 이를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수급자 발굴이 용이하여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주요내용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

나. 빅데이터 복지행정 강화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복지행정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증가 추세
-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뉴딜의 실현을 위해 정보화 및 통계 등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통한 민원과 정책현안 해결 확대 필요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타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복지 구현
- 행정 빅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를 통해 공공데이터라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행정과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가구 예측 및 건강복지지도 구축을 통한 주민 복지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

- 빅데이터 복지정책지도 구축

다.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2021년 10말 현재 거제시 인구 242,103명 중 등록 장애인은 4.64%(11,251명)으로 전국 평균 5.0%보다 낮고 경남 평균 2.66%보다 높음

- 2018년 서울시 복지재단 조사 결과, 한국 장애 인구의 50%는 일주일간 동거인 이외 사람을 만난 적 없고, 20%는 일주일 동안 외출 경험이 없다고 답해 장애인 지원이 공정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촘촘하고도 세심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차별이 없는 포용도시 거제 구현
- 장애인들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 및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현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 지원강화

라. 1인 가구 이웃돌봄 강화

○ 추진배경

-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족 지원정책으로 인해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 거제시의 1인 가구는 35.6%로 매우 높고 매년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웃과의 관계 단절과 고립, 도시 공동화와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연령별,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불안정적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전문적 케어 지원

- ICT기반 지원 인프라를 중심으로 1인 가구 통합 케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관계망 강화, 주거, 건강, 소비 등 분야별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강화

○ 주요내용

- 1인 가구 이웃돌봄 강화

마. 거제시 청년자립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교육과 문화적 기회를 찾아 거제를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음
- 청년문제는 단순히 실업률로 인한 경제적 성장동력의 손실이 아닌 주거불안과 부채문제, 더 나아가 교육과 결혼을 거부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확대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거제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를 지원하는 청년자립 지원체계구축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청년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당사자 주도 정책추진 체계 확립하고 관계인구 개념에 기반한 다양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적 권리 보장

○ 주요내용

- 거제시 청년자립 지원체계 구축

바. 동물매개치료센터 운영

○ 추진배경

- 거제시는 2008년부터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보호소 인근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
- 유기 반려동물의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매개치료 시설이 더욱 중요

○ 추진방향 및 미래전략

- 반려인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동물매개치료센터 운영
- 동물교감 치유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식당・해수욕장・카페 등을 지정하고 팻보험을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동물매개치료센터 운영

2.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검토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법률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임

○ 전체 사회보장 전략에서 주민을 변화매개체로 주민중심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민·관협력형 전략 구축. 거제시의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중심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

○ 거제시는 조선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조선 산업의 경기에 의해 인구 및 지역 산업 경제가 받는 영향이 큰 지역임.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거제시의 지난해 하반기 실업률도 4.5%로 전국 상위권 수준임. 이는 전체 시(市) 지역 평균 실업률 3.1%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이에 거제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이나 최근 조선업의 호황으로 인해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취약계층 및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제시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한 읍면동 간 격차를 보임. 18개 면·동 중 9개동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도로, 주택 및 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면 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81.4%를 차지함에도 인구가 적고 노령 인구가 많아 노인층과 관련된 돌봄 또는 보건, 복지 및 농·어업 등에 관한 욕구가 높음

○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앞서 언급한 거제시의 지역적 강점과 약점의 한계를 극복하되 민선8기의 시정목표와 연계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한 FGI와 TF팀 워크숍을 통해 거제시만의 특징적인 목표와 전략체계를 설정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6개의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를 설정함

2) 거제시 사회복지기관 현황 분석

○ 거제시 사회복지기관의 현황을 분석하면 노인 시설이 92개소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 시설 45개소, 아동 시설 19개소, 지역시설 17개소, 청소년 시설 6개소, 여성가족과 권익증진 시설은 각각 3개소, 영유아 시설 1개소로 분포

○ 면동에 따른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동단위 61.8%에 비해 면지역에 38.2%를 차지 함. 이 중 고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이 3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연초면 21개소, 옥포동 16개소, 장승포동과 상문동 각각 14개소, 사등면 12개소의 순으로 분포함

○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총 168개 기관 중 127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는 총 462개로 조사됨(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및 미응답 기관 제외)

- 자원조사 결과 노인 관련 시설의 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여성가족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의 순으로 조사됨
- 노인 관련 시설의 경우 보호 및 돌봄 요양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시설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5> 거제시 사회복지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지역시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권익증진
거제시	186	17	92	45	1	19	6	3	3
동지역	115(61.8%)	8(4.3%)	50(26.9%)	34(18.3%)	1(0.5%)	11(5.9%)	6(3.2%)	3(1.6%)	2(1.1%)
면지역	71(38.2%)	9(4.8%)	42(22.6%)	11(5.9%)	0(0.0%)	8(4.3%)	0(0.0%)	0(0.0%)	1(0.5%)
일운면	8	3	4	0	0	1	0	0	0
동부면	3	0	0	2	0	1	0	0	0
남부면	4	1	2	0	0	1	0	0	0
거제면	10	1	5	1	0	3	0	0	0
둔덕면	5	1	3	0	0	1	0	0	0
사등면	12	2	9	0	0	0	0	0	1
연초면	21	1	11	8	0	1	0	0	0
하청면	7	0	7	0	0	0	0	0	0
장목면	1	0	1	0	0	0	0	0	0
장승포동	14	1	5	7	0	1	0	0	0
능포동	7	0	6	0	0	1	0	0	0
아주동	9	0	4	2	0	0	1	1	1
옥포동	16	3	6	3	0	3	1	0	0
장평동	8	0	6	1	0	1	0	0	0
고현동	36	2	16	8	0	3	4	2	1
상문동	14	1	5	7	0	1	0	0	0
수양동	11	1	2	6	1	1	0	0	0

- 지역시설의 경우 문화 및 여가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 관련 시설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청소년 관련 시설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여성가족 관련 시설의 경우 보육 및 교육 서비스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서비스의 비중이 높았으며, 권익증진 관련 시설의 경우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서비스의 제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6> 거제시 사회복지기관 제공 서비스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체	지역시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권익증진
합계	462	85	138	76	14	61	16	62	10
보호 및 돌봄 요양	120	4	85	9	7	9	2	2	2
일자리	32	4	17	3	0	0	0	8	0
보육 및 교육	80	14	14	5	4	28	3	12	0
문화 및 여가	85	48	0	12	3	9	8	5	0
일상생활	65	13	15	21	0	6	0	10	0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31	0	0	6	0	4	3	12	6
주거	4	1	1	1	0	0	0	1	0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19	0	6	10	0	0	0	3	0
안전 및 권익보장	26	1	0	9	0	5	0	9	2

<표 7>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지역시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	권익증진
거제시		186	17	92	45	1	19	6	3	3
일운면	남부권역	8	3	4	0	0	1	0	0	0
동부면		3	0	0	2	0	1	0	0	0
남부면		4	1	2	0	0	1	0	0	0
권역소계		**15(8%)**	**4(23.5%)**	**6(6.5%)**	**2(4.4%)**	**0(0%)**	**3(15.8%)**	**0(0%)**	**0(0%)**	**0(0%)**
거제면	서부권역	10	1	5	1	0	3	0	0	0
둔덕면		5	1	3	0	0	1	0	0	0
사등면		12	2	9	0	0	0	0	0	1
권역 소계		**27(14.5%)**	**4(23.5%)**	**17(18.5%)**	**1(2.2%)**	**0(0%)**	**4(21.1%)**	**0(0%)**	**0(0%)**	**1(33.3%)**
연초면	북부권역	21	1	11	8	0	1	0	0	0
하청면		7	0	7	0	0	0	0	0	0
장목면		1	0	1	0	0	0	0	0	0
권역 소계		**29(15.6%)**	**1(5.9%)**	**19(20.7%)**	**8(17.8%)**	**0(0%)**	**1(5.3%)**	**0(0%)**	**0(0%)**	**0(0%)**
장승포동	동부권역	14	1	5	7	0	1	0	0	0
능포동		7	0	6	0	0	1	0	0	0
아주동		9	0	4	2	0	0	1	1	1
옥포동		16	3	6	3	0	3	1	0	0
권역 소계		**46(24.7%)**	**4(23.5%)**	**21(22.8%)**	**12(26.7%)**	**0(0%)**	**5(26.3%)**	**2(33.3%)**	**1(33.3%)**	**1(33.3%)**
장평동	중부권역	8	0	6	1	0	1	0	0	0
고현동		36	2	16	8	0	3	4	2	1
상문동		14	1	5	7	0	1	0	0	0
수양동		11	1	2	6	1	1	0	0	0
권역 소계		**69(37.1%)**	**4(23.5%)**	**29(31.5%)**	**22(48.9%)**	**1(100%)**	**6(31.6%)**	**4(66.7%)**	**2(66.7%)**	**1(33.3%)**

○ 권역별 복지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시 전체 사회복지기관 중 중부권역(37.1%), 동부권역(24.7%), 북부권역(15.6%), 서부권역(14.5%), 남부권역(8%) 순으로 나타났음. 이 중 지역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한 현황

을 분석해보면, 남부권역, 서부권역, 동부권역, 중부권역에서 4개소씩(23.5%) 분포하고 있었으나 북부권역에서는 1개소 소재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92개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권역(31.5%), 동부권역(22.8%), 북부권역(20.7%), 서부권역(18.5%), 남부권역(6.5%) 순으로 나타났음. 장애인복지시설 45개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권역(48.9%), 동부권역(26.7%), 북부권역(17.8%), 남부권역(4.4%), 서부권역(2.2%) 순으로 나타났음

○ 영유아시설은 전체 1개소로 중부권역에만 소재하고 있음

○ 아동시설 19개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권역(31.6%), 동부권역(26.3%), 서부권역(21.1%), 남부권역(15.8%), 북부권역(5.3%) 순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시설 6개소 중 중부권역 4개소(66.7%), 동부권역 2개소(33.3%)를 차지함. 그 외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여성가족시설 3개소는 중부권역 2개소(66.7%), 동부권역 1개소(33.3%) 차지함. 그 외 지역에는 여성가족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권익증진시설 3개소는 서부권역 1개소(33.3%), 동부권역 1개소(33.3%), 중부권역 1개소(33.3%)를 차지함

3) 주요 사회보장 영역별 핵심과제 도출

구분	내 용
영유아, 아동	- 영유아 및 아동 양육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개발 • 욕구조사 결과, 아동 돌봄 중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시설 서비스, 양육정보 및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설과 양육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필요

구분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방학 중 급식 추가 지원 필요 • 영유아 및 아동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동돌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 • FGI 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안내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방안이 필요 출산 장려정책,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공동 육아시설 설치 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청소년	-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사업 마련 • 코로나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학령기인구 1만 명당 학교 수가 경남 전체(24.44개)에 비해 낮아(19.11개)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타 시군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도내 3위) 교육의 질과 편의 향상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 필요 • 욕구조사 결과, 교육 영역에서의 기초학습 능력에 대한 욕구가 다소 높게 나타나 학령기 인구의 기초학습 지원이 요구됨 •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아동교육 희망정책 중 희망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및 돌봄 인프라 확충사업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사업은 인터넷 강의 연회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기초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청소년 여가생활과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서비스 마련 •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체험시설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도심지 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경상남도 사회조사 중 희망하는 여가·놀이 공간 확대사업 및 안전·안심 환경 조성사업으로 15~19세에서 청소년 전용

구분	내 용
	공간 조성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함 - 건강하고 밝은 미래 성장을 위한 서비스 • 인터넷 및 게임중독을 포함한 유해환경이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제거될 수 있는 서비스 마련 필요 •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 다양한 상황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의 상담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
노인	-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 •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및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 센서가 내장된 팔찌 등 지원이 필요 •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계약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에 대한 긍정응답이 65세 이상에서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기반 마련이 필요 • FGI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 및 돌봄시설 위주여서 문화여가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 -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및 가사지원 • 2018년 이후 1인가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욕구조사에서 노인가구의 가사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관련 서비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와 가사지원을 통해 노인가구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 장애인 편의 증진 방안 마련 • 장애인 복지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 장

구분	내 용
	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용구 편의성 개선 등 장애인의 편의를 보다 더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인권 신장 • 해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도입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개선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환경조성 필요 -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립 실천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여성/ 가족/ 다문화	-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거제시 응답자의 22.3%가 육아, 가사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제한되어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의 돌봄 참여 지원 및 돌봄 관련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하여 여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제시 조성 • 지역 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 및 돌봄 정책 필요 • 2021년 12월 기준 거제시 거주 외국인 수는 약 5,700여명으로 주로 조선업과 관계된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제 조성을 위해 생활 가이드(분리수거 방법, 필요 시설 위치 등)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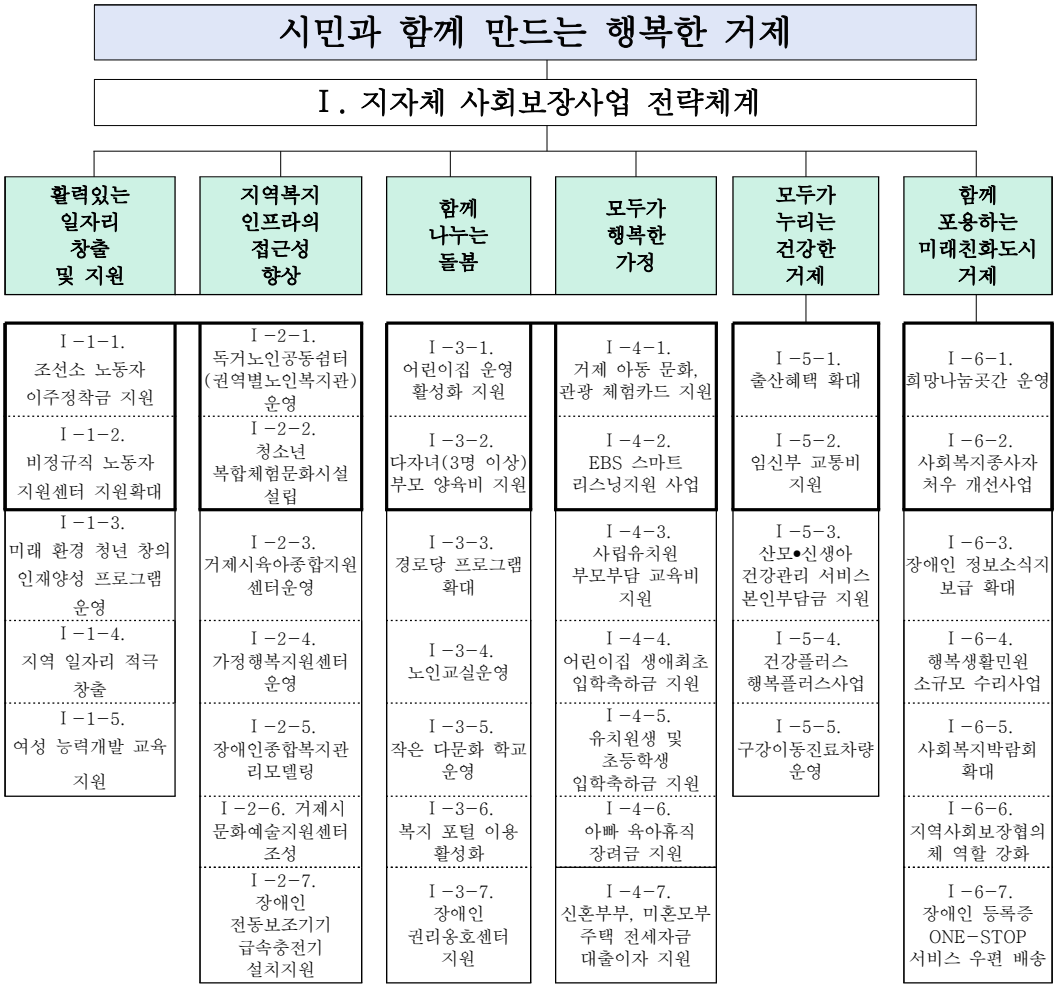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보건/ 의료	-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홍보 • 거제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곽지역의 경우 교통편이 다소 불편한 실정임.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부모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케어 택시(가칭)’ 운영 방안 검토 - 몸과 마음 모두 케어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6번째(5.6%)로 높으며, 욕구조사 결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 중인 전화, 대면, 온라인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의 개설이 필요 •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주 및 중독상담 등을 중독센터와 같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상담 및 치료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일자리	- 다양한 계층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 2023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시행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총 28개로 이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7개로 약 60%를 차지함.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 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인 중년층 일자리의 부족 발생,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필요 • 거제시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선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필요

4) 목표 및 전략체계

목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	
전략체계 1. 일자리	활력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전략체계 2. 복지인프라	지역 복지 인프라의 접근성 향상
전략체계 3. 돌봄	함께 나누는 돌봄
전략체계 4.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
전략체계 5. 보건, 건강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거제
전략체계 6. 사회 환경	함께 포용하는 미래친화도시 거제

5)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총 16개 사업(세부사업 5개, 세부과업 11개)]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급여 이용및제공 기반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인프라 확충
1. 위기가구발굴	**1. 아동친화도시 조성**	**1.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심리상담지원 강화**
Ⅱ-1-1-1. 위기가구 발굴 거버넌스 구축	Ⅰ-4-1. 거제 아동 문화, 관광 체험카드 지원	Ⅰ-6-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Ⅱ-4-1-1. 가가호호 가정 폭력 전문상담 서비스
Ⅱ-1-1-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Ⅱ-2-1-2. 거제어린이축제 개최	Ⅱ-3-1-2. 거제시 지사협위원 역량강화 교육	Ⅱ-4-1-2.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2. 부적정 수급방지	**2. 소통하는 민관협력 복지공동체조성**	**2. 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2.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확대**
Ⅱ-1-2-1.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조사	Ⅰ-6-4.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	Ⅱ-3-2-1. 면동지사협운영 활성화	Ⅰ-3-6. 복지 포털 이용 활성화
Ⅱ-1-2-2.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Ⅰ-6-1. 희망나눔곳간 운영	Ⅱ-3-2-2. 면동지사협위원 역량 강화 교육	Ⅱ-4-2-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

Ⅲ. 거제시 권역별 복지욕구 조사

Ⅲ. 거제시 권역별 복지욕구 조사

1. 권역별 복지욕구 설문조사 결과

○ 거제시 권역별 지역주민욕구조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설문조사하였던 자료를 권역별로 재분석하였음

1) 영역별 어려움 경험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전반적으로 어려움의 경험 정도는 평균이하로 나타났지만, 고용영역에서 취/창업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제시 5개 권역별로 어려움의 경험 정도,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남

○ 어려움 정도와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모두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함

(1) 아동돌봄

○ 거제시 전체적으로 아동돌봄 영역중에서 양육비 부담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동부권에서 양육비 부담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아동 양육부담에서 동부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거제시 전체에서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양육시간, 양육정보・기술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표에서 동부권이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8> 아동돌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아동 양육 부담	① 양육비 부담	3.11	3.00	**3.34**	2.00		2.25
		②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3.06	3.01	**3.22**	2.00		2.00
		③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2.98	**3.06**	3.03	2.00		1.75
		④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3.06	2.99	**3.21**	3.00		2.00
		⑤ 아동의 발달 문제 지원 서비스	2.08	1.84	**2.39**	2.00		1.00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아동 양육 부담	① 양육비 부담	3.39	3.30	**3.61**	2.00		2.50
		②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3.35	3.33	**3.52**	2.00		2.25
		③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31	3.25	**3.49**	2.50		2.00
		④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3.31	3.19	**3.52**	2.75		2.50
		⑤ 아동의 발달 문제 지원 서비스	2.60	2.55	**2.75**	1.75		1.75

(2) 노인돌봄

○ 거제시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영역중에서는 어려움 크게 느끼지 않았으며, 권역별로는 남부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긴급상황 대처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권역별로는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의 모든 지표에서 남부권이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9〉 노인돌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10	1.45	2.43	1.50	**2.87**	1.96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2.13	1.86	2.40	1.00	**2.73**	2.00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2.15	1.68	2.37	1.88	**2.67**	2.04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2.09	1.55	2.40	1.75	**2.53**	2.00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2.15	1.73	2.37	1.88	**2.53**	2.08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2.24	1.86	2.37	2.20	**2.60**	2.17
		⑦ 돌봄비용 부담	2.19	1.86	2.40	1.75	**2.60**	2.08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17	1.77	2.37	1.88	**2.60**	2.08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45	1.68	2.66	1.57	**3.13**	2.68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2.44	1.77	2.57	1.57	**3.07**	2.72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2.43	1.73	2.57	1.71	**3.00**	2.72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2.50	1.86	2.63	2.00	**2.93**	2.76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2.54	1.86	2.66	2.14	**2.93**	2.84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2.53	1.86	2.66	2.00	**2.93**	2.79
		⑦ 돌봄비용 부담	2.48	1.86	2.66	1.43	**2.93**	2.80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48	1.86	2.66	1.57	**2.93**	2.76

(3) 장애인돌봄

○ 거제시 전체적으로 장애인돌봄 영역중에서는 어려움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신체·정신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대체로 남부권에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어려움의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남부권과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10> 장애인돌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71	2.15	2.70	2.67	**3.67**	2.85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2.96	3.00	2.70	3.33	**3.67**	2.69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00	2.85	3.00	3.00	**3.50**	2.92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2.62	2.00	2.50	3.00	**3.50**	2.85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2.78	2.38	2.50	2.67	**3.50**	3.08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3.10	3.00	2.56	**3.67**	3.50	3.25
		⑦ 돌봄비용 부담	2.93	2.77	2.70	3.33	**3.50**	2.92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93	2.92	2.60	3.50	**3.60**	2.85
		⑨ 장애아동 돌봄 부담	2.75	3.00	1.50		**4.00**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3.36	2.92	3.40	2.67	**3.83**	3.69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3.42	3.00	3.40	3.33	**4.00**	3.62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44	3.00	3.60	3.33	3.67	**3.69**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3.43	3.08	3.40	3.33	3.67	**3.69**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3.47	3.15	3.40	3.33	**3.83**	3.69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3.47	3.25	3.33	3.33	3.67	**3.69**
		⑦ 돌봄비용 부담	3.52	3.38	3.40	3.33	3.67	**3.75**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47	3.31	3.40	3.33	**3.67**	3.62
		⑨ 장애아동 돌봄 부담	3.22	3.80	2.00	2.00		**4.00**

(4) 정신 및 신체 건강

○ 거제시 전체적으로 정신 및 신체 건강 영역은 어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 건강보다는 신체 건강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권역별로는 남부권에서 정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체 건강은 북부권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질환과 건강관리 관련된 외부지원/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로는 차이는 어려움 정도와 비슷하게 나타남

<표 11>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정신 건강	①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1.91	1.77	2.03	1.75	**2.10**	1.93
		②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42	1.24	1.59	1.30	**1.95**	1.17
		③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1.42	1.25	1.61	1.20	**1.95**	1.00
		④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1.43	1.26	1.59	1.35	**1.95**	1.07
		⑤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1.47	1.39	1.60	1.25	**1.95**	1.00
	신체 건강	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14	2.00	1.90	2.75	2.55	**3.30**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2.12	2.01	1.90	2.40	2.55	**3.27**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신 건강	①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1.97	1.98	2.02	1.55	**2.00**	1.90
		②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67	1.63	1.78	1.25	**1.95**	1.41
		③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1.69	1.71	1.78	1.25	**1.95**	1.21
		④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1.71	1.74	1.78	1.40	**1.95**	1.21
		⑤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1.72	1.78	1.79	1.35	**1.95**	1.21
	신체 건강	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30	2.25	2.13	2.35	2.45	**3.23**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2.31	2.31	2.13	2.10	2.45	**3.23**

(5) 기초생활유지

○ 거제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유지 영역은 어려움의 정도는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대체로 남부권에서 기초생활유지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어려움의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계비, 의료비,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 높았음

○ 권역별로는 대체로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2> 기초생활유지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기초 생활	① 생계비 부족	2.79	2.45	3.15	2.25	**3.60**	2.40
		②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2.44	2.18	2.77	1.70	**3.05**	2.03
		③ 의료비 부족	2.63	2.27	2.92	2.20	**3.60**	2.47
		④ 교육비 부족	2.04	2.11	**2.34**	1.45	1.05	1.30
		⑤ 냉난방비 부족	2.63	2.24	2.98	2.05	**3.60**	2.37
		⑥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58	2.54	2.67	2.05	**3.00**	2.38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기초 생활	① 생계비 부족	3.18	2.87	3.47	2.40	**4.00**	3.17
		②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3.01	2.78	3.23	2.20	**3.55**	3.17
		③ 의료비 부족	3.14	2.86	3.35	2.55	**4.00**	3.27
		④ 교육비 부족	2.39	**2.54**	2.51	1.75	1.05	2.43
		⑤ 냉난방비 부족	3.13	2.76	3.40	2.55	**4.00**	3.27
		⑥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94	2.82	3.00	2.35	**3.45**	3.20

(6) 가족, 안전, 교육

○ 거제시 전체적으로 가족, 안전, 교육 영역에서 느끼는 어려움 수준은 낮음. 다만, 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로는 가족과 안전 영역은 대체로 남부권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영역은 동부권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어려움의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유지의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동부권과 중부권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3> 가족, 안전, 교육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가족	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1.79	1.80	1.89	1.55	**2.00**	1.27
		②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1.82	1.89	1.91	1.35	**2.00**	1.23
	안전	①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1.60	1.41	1.89	1.20	**2.00**	1.03
		②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1.63	1.50	1.89	1.15	**2.00**	1.03
	교육	①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2.01	2.02	**2.09**	1.50		1.00
		② 학업유지의 어려움	2.37	1.98	**2.85**	1.75		1.33
		③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93	1.92	**2.00**	1.50		1.33
		④ 평생교육의 어려움	1.99	1.99	2.14	**2.25**	1.85	1.14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가족	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1.93	2.01	**2.06**	1.35	2.05	1.20
		②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1.95	**2.07**	2.06	1.35	2.05	1.20
	안전	①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1.87	1.93	**2.05**	1.25	2.00	1.03
		②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1.91	2.00	**2.06**	1.25	2.00	1.03
	교육	①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2.65	**2.73**	2.70	2.00		1.33
		② 학업유지의 어려움	2.98	2.73	**3.40**	2.00		1.33
		③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2.62	**2.69**	2.68	2.00		1.33
		④ 평생교육의 어려움	2.28	2.30	**2.53**	2.40	1.85	1.03

(7) 고용

○ 거제시 전체적으로 취/창업의 어려움이 고용유지의 어려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일자리와 취·창업 정보 부족, 나이·성별·장애를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낌

○ 권역별로는 취/창업 영역은 대체로 중부권과 동부권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지 영역은 동부권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어려움의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도산, 폐업 등 일거리 부족,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열악, 일자리, 취·창업 정보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음

○ 권역별로는 서부권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취·창업 정보에 대해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높았음

<표 14> 고용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취/창업의 어려움	①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54	**3.70**	3.46	3.33	3.50	3.00
		② 취업·창업 정보 부족	3.33	**3.57**	3.22	2.83	3.30	2.78
		③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18	**3.41**	3.16	2.67	2.60	2.44
		④ 창업자금 부족	2.90	2.94	**3.05**	1.75	2.60	1.83
		⑤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25	3.28	**3.40**	2.50	**3.40**	2.11
	고용유지의 어려움	⑥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79	2.63	**3.17**	2.29	3.11	1.62
		⑦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81	2.74	**3.18**	1.93	3.00	1.52
		⑧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61	2.49	**3.02**	1.71	2.89	1.33
		⑨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47	2.51	**2.63**	2.62	1.67	1.57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취/창업의 어려움	①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73	3.92	3.61	**4.17**	3.80	2.89
		② 취업·창업 정보 부족	3.66	3.93	3.45	**4.17**	3.60	2.89
		③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51	**3.78**	3.41	3.50	3.10	2.67
		④ 창업자금 부족	3.27	**3.38**	3.37	2.00	3.10	2.00
		⑤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54	3.64	3.54	3.50	**3.70**	2.56
	고용유지의 어려움	⑥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3.12	3.13	**3.41**	2.64	3.11	1.62
		⑦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3.09	3.11	**3.40**	2.29	3.11	1.62
		⑧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3.00	3.01	**3.31**	2.36	3.00	1.62
		⑨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76	**2.92**	2.88	2.79	1.78	1.52

(8) 주거

○ 거제시 전체적으로 주거의 경우 어려움 경험 정도는 낮으나 층간 방음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권역별로는 대체로 남부권에서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주거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① 화장실 열악	1.71	1.56	1.97	1.15	**2.05**	1.30
	② 주방시설 열악	1.69	1.55	1.93	1.20	**2.10**	1.27
	③ 위생 상태 열악	1.71	1.55	1.95	1.20	**2.15**	1.30
	④ 도배·장판 열악	1.75	1.60	2.01	1.25	**2.10**	1.27
	⑤ 층간방음 열악	2.13	**2.36**	2.21	1.30	2.05	1.17
	⑥ 냉·난방 열악	1.75	1.58	2.01	1.30	**2.20**	1.30
	⑦ 전기·가스시설 열악	1.73	1.59	1.97	1.40	**2.10**	1.23
	⑧ 상하수도 열악	1.72	1.56	1.97	1.20	**2.15**	1.21
	⑨ 지붕노후(누수 등)	1.74	1.59	1.96	1.55	**2.25**	1.17
	⑩ 벽·담 등 노후	1.79	1.62	2.02	1.35	**2.10**	1.48
	⑪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1.71	1.54	1.93	1.30	**2.15**	1.36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① 화장실 열악	2.09	1.96	2.35	1.20	**2.65**	1.63
	② 주방시설 열악	2.09	1.96	2.34	1.20	**2.70**	1.63
	③ 위생 상태 열악	2.11	1.98	2.35	1.20	**2.75**	1.67
	④ 도배·장판 열악	2.13	1.98	2.38	1.35	**2.70**	1.73
	⑤ 층간방음 열악	2.33	2.46	2.45	1.40	**2.65**	1.50
	⑥ 냉·난방 열악	2.13	2.01	2.37	1.35	**2.80**	1.63
	⑦ 전기·가스시설 열악	2.10	1.97	2.34	1.40	**2.65**	1.57
	⑧ 상하수도 열악	2.11	1.99	2.37	1.20	**2.70**	1.63
	⑨ 지붕노후(누수 등)	2.11	1.99	2.33	1.50	**2.80**	1.53
	⑩ 벽·담 등 노후	2.11	1.98	2.36	1.20	**2.65**	1.73
	⑪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2.05	1.91	2.30	1.35	**2.55**	1.63

(9) 법률 및 문화여가

○ 거제시 전체적으로 법률 및 문화여가 영역에서 어려움 경험 정도는 낮으나, 문화/여가, 체육활동 항목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어려움의 항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어려움의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여가, 체육활동 영역의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로는 중부권이 상대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16> 법률 및 문화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어려움 정도	법률	①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1.79	1.71	**2.01**	1.35	2.00	1.13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1.74	1.65	1.97	1.40	**2.00**	1.10
	문화	①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2.32	**2.61**	2.16	2.40	2.00	1.90
		②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2.28	2.49	2.15	**2.50**	2.00	1.93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법률	①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2.10	**2.26**	2.24	1.40	2.00	1.20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2.08	**2.24**	2.21	1.50	1.95	1.17
	문화	①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2.54	**3.01**	2.35	2.30	2.00	1.83
		②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2.52	**2.94**	2.36	2.30	2.00	1.83

2)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에 대한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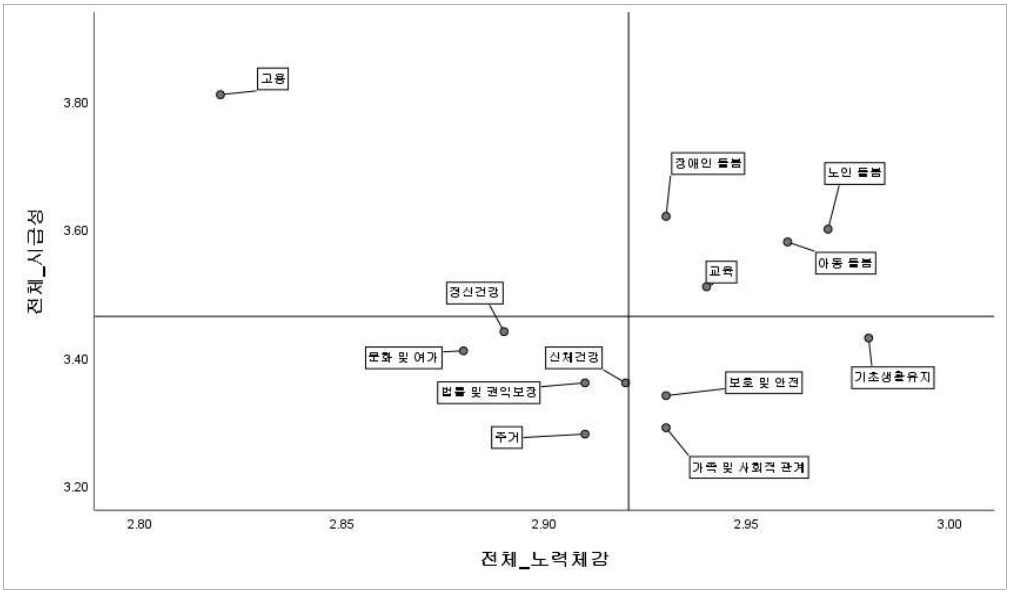
○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를 IPA 분석을 하였음

○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정책의 시급성이 3.46점, 노력체감도는 2.92점으로 대체로 정책 시급성에 비해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 중에서 고용에 대한 정책 시급성이 가장 높으며, 노력 체감도와의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정책 시급성에 비해 노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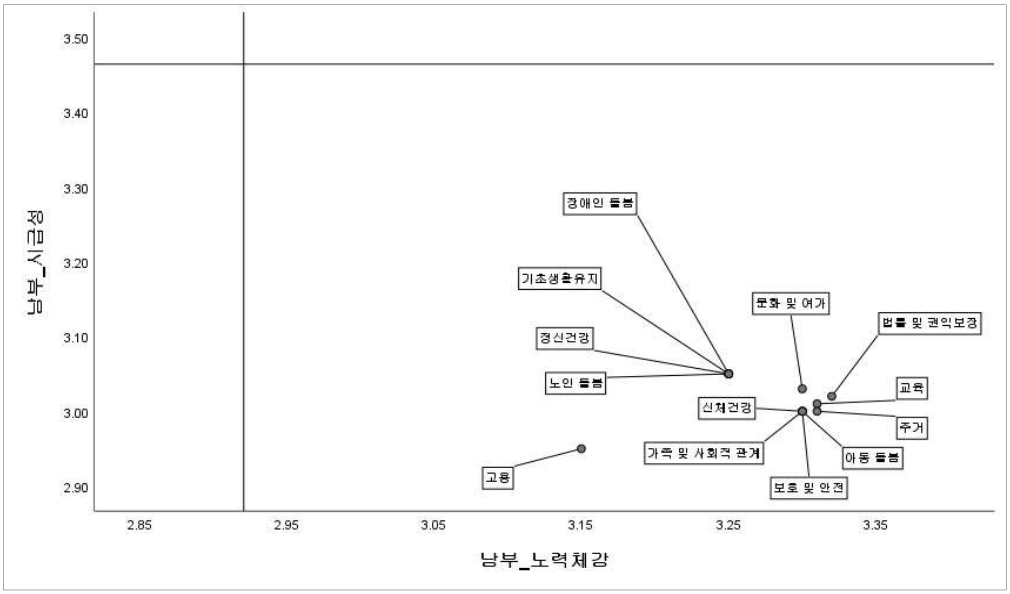
○ 고용 > 장애인돌봄 > 노인돌봄 > 아동돌봄의 순으로 정책 개발이 시급

○ 기초생활유지 > 노인돌봄 > 아동돌봄의 순으로 거제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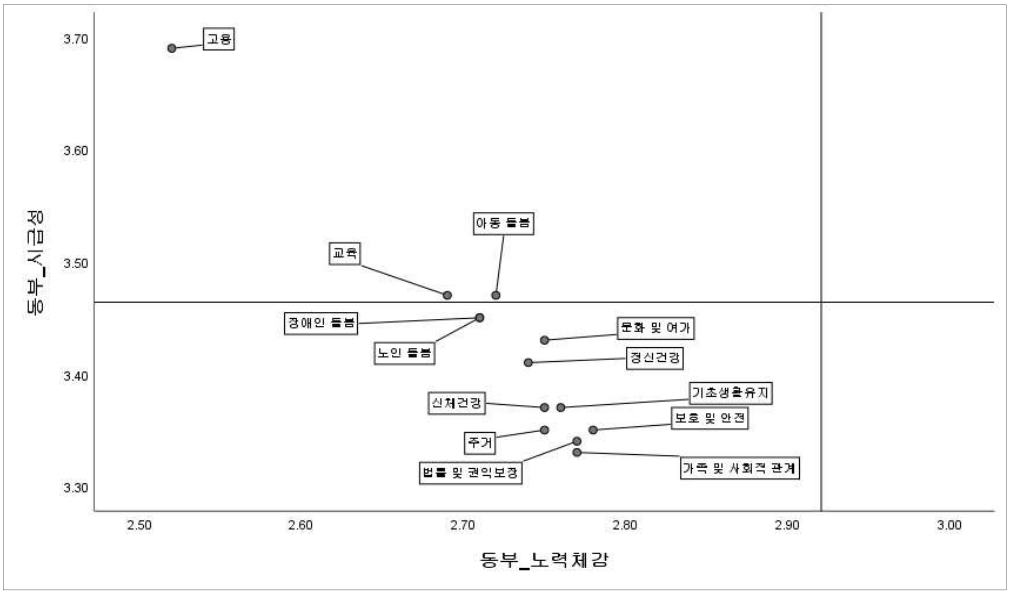
[그림 3]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거제시 전체

○ 남부권에선 사회보장의 모든 영역이 정책시급성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노력체감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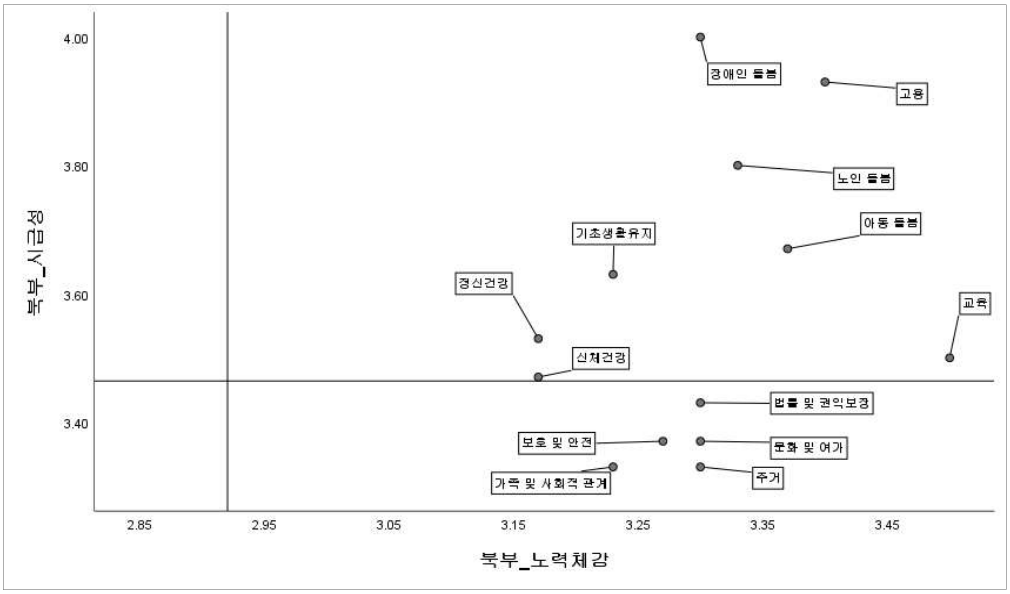
[그림 4]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남부권

○ 동부권에선 고용을 제외한 사회보장의 대부분 영역이 정책시급과 노력체감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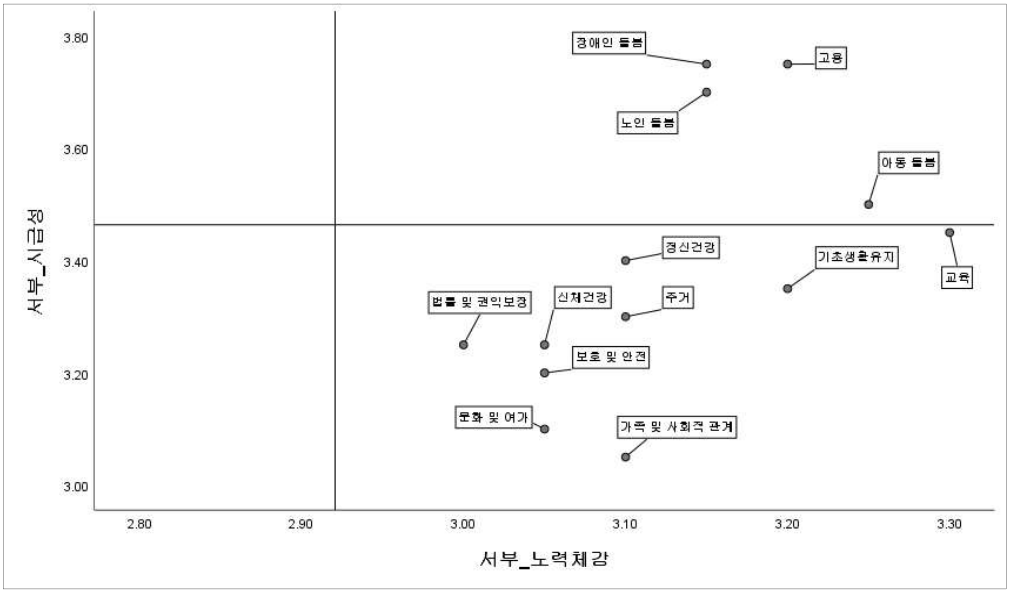


[그림 5]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동부권

○ 북부권과 서부권에선 사회보장의 모든 영역이 노력체감도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정책시급성은 장애인돌봄 > 고용 > 노인돌봄 > 아동돌봄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그림 6]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북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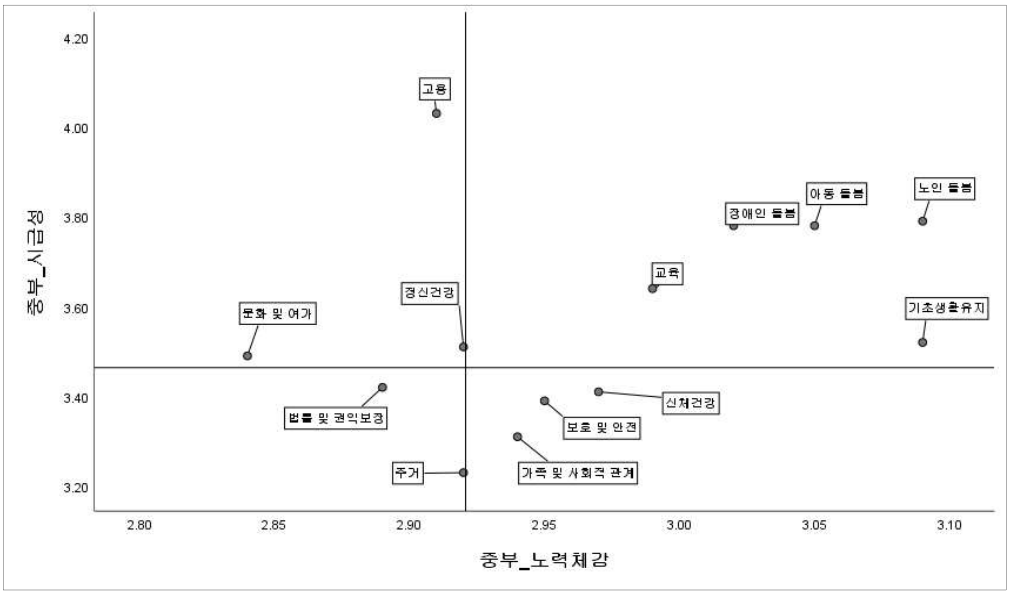


[그림 7]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서부권

○ 중부권에선 사회보장의 영역중에서 정책시급성은 고용 > 장애인돌봄/아동돌봄/노인돌봄 >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 노력체감도는 노인돌봄/기초생활유지 > 아동돌봄 > 장애인돌봄 >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 그러므로 정책시급성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노력체감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고용, 정신건강,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정책시급성과 노력체감도의 IPA_중부권

3)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 및 삶의 만족도는 모두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좋음을 의미함

○ 현재 경제 상태(2.40점)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중에서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며, 거제시의 타 시군 대비 평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 서부권역에서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7> 주관적 경제상태 및 삶의 만족도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주관적 경제상태	2.40	2.47	2.37	**2.65**	1.95	2.3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3.33	3.39	3.19	**4.00**	3.10	3.50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3.28	3.24	3.20	**3.80**	3.25	3.53
현재의 삶의 질	3.07	3.13	2.95	**3.65**	2.80	3.17
타 시군 대비 평가	2.85	2.74	2.75	**3.30**	3.25	3.27

4) 지역 간 불균형

○ 지역 간 불균형은 모두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간 불균형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의료시설’과 ‘일자리’ 항목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 동부권역에서 지역 간 불균형의 모든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8> 지역 간 불균형

영 역	전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① 소득 및 자산 (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등)	3.16	3.20	**3.33**	2.90	3.10	2.37
② 주거 (주택 및 주변시설의 낙후 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3.11	3.15	**3.25**	2.95	3.00	2.43
③ 일자리 (일자리의 수,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등)	3.60	3.57	**3.79**	3.55	3.50	2.87
④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학원 등)	3.34	3.34	**3.55**	3.25	3.05	2.57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3.25	3.28	**3.35**	3.20	3.05	2.77
⑥ 의료시설 및 서비스 (종합병원, 병원/의원 등)	**3.69**	3.71	**3.91**	3.40	3.20	3.03
⑦ 생활편의시설 (마트, 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3.05	2.86	**3.46**	2.60	3.05	2.23
⑧ 문화·여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3.41	3.54	**3.63**	2.75	3.10	2.37
⑨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3.19	3.28	**3.31**	2.85	3.00	2.50

2. 권역별 FGI 분석 결과

1) 남부권(남부면, 동부면, 일운면) FGI

(1) 지역특화 상품 홍보 강화 및 판매부스 설치 필요

○ 지역특화 관광 상품 홍보 강화(유자빵, 거제 굴 등)

> 관광객들이 거제에 놀러오면서 거제에서는 관광 상품을 뭘 사가지고 가야 돼지라고 물어보는데 지역특화 상품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통영가면 꿀빵이 있는데 거제에도 지금 유자빵이 있는데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고, 굴 같은 경우에도 거제에 들려서 여행하고 가시면서 통영에서 굴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 지역특화 관광 상품 판매하는 부스 설치 필요(마을 공동체 기업 등)

> 동부면은 면적은 굉장히 넓고 인구는 굉장히 작고 면적으로만 치면 사실 거제 한 8분의 1 정도, 거제 인구의 한 2% 동부면에 3천 명 정도, 노인 인구가 2천 명 이상으로 청년들은 없고.
> 이 지역 자체가 관광지가 대부분인데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화되어 있는 부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미역 같은 건 어디서 사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들 물어보는데 그런 게 모여져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조금 더 홍보에 좋지 않을까?
>
> 거제 동부면에 된장마을이 있는데 된장 맛도 좋고, 버섯 공장도 있고, 노자산쪽이 버섯 표본 착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어르신분들도 그러면 팔 수 있고....

○ 지역특화 관광 상품 판매와 일자리 연결 필요

> 만약에 관광 상품 판매처가 생기면 마을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소규모 카페 이런 식의 카페가 들어선다면 장애인일자리도 확충된 그런 부분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 남부면, 동부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노선 확장 또는 콜택시 배치 등)

> 동부면에 위치하는 반야원은 고현터미널에서 출발하면 시설 앞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나 거주인들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농촌 지역을 다니는 버스의 특성상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들려오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자원봉사자분이나 거주인들에게 대중교통을 안내해 드리는데 반야원 앞에까지 들어오는 건 거의 1시간에 한 번꼴 하루에 6대, 7대 정도라 대중교통에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 동부면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뭘 준공한다고는 돼 있어요. 준공해서 이걸 이용하려면 차량이 없으면 안 되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밖에 안 되는데 기본 베이스는 젊은 사람은 없고 과연 남부 권역에 이걸 준공했을 때 이걸 이용할 만한 인프라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전문적 서비스 지원 기관 필요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설치 필요

> 동부의 경우 동네에 친인척 관계로 있다보니 오히려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노인 학대, 노인 방임 등의 노인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반해 이거를 해결해 줄 만한 중심축이 없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창원, 진주에는 있지만 거제에는 없어요
> 저희도 노인학대 등의 사건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타 지역에서 넘어오시는데도 그렇고 또 전화를 드려봤자 면사무소로 다시 되돌아오다보니 가족이 거부를 하시면 접근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인 행정에서 져야하니 모두들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장애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거제면에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노인 쪽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나 요런거 같아요.

(4) 동부면 거점기관으로서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역할 및 기능 강화

○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역할 및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배치

> 거제면에 있는 하나행복나눔센터에서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데 90% 이상이 대부분 어르신이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20명, 많을 때는 하루에 180명, 이용 요금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65세 이하는 3천 원, 65세 이상은 2천 원, 일반 목욕탕의 10분의 1 가격이다 보니 이용자가 아주 많습니다.
> 여기는 어르신들의 청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놀이터죠 뭐 사람들 친목 형성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 농번기가 되면 조금 줄었다가 농한기가 되면 이용자가 아주 많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밖에 없어요.

○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처음에 지을 때는 거제와 남부와 동부의 그 중심점이 여기라서 권역 복지관으로 기반을 삼아볼까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목욕탕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꾸며낼 수 있는지 사실 규모도 그렇고....
> 어차피 복지관이 되면 두 개가 양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 행정에서 사실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요.

(5) 일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필요

> 일운면은 다른 자생 단체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4기가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했고 이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분들이 사실 발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6) 일운면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주민 조직화 필요

> 일운면은 일단 장점들이 참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접근성이고 일단 많은 관광 상품을 관광 상품들이 많이 좀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될 가치가 있는 곳들도 많고 이래서 또 그 지역 자체에 또 어떤 자원이 많아요. 번영회의 요트 기지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자본적인 기업도 많고 인구는 한 4,300명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층도 많고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한 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남부권역에 산림녹지를 활용한 쉼과 치유센터 설치 필요

저는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치유를 힐링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산림 녹지와 치유 힐링 이런 거를 접목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 면단위 어르신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

어르신들이 보면 대부분 아프세요. 근데 사실 걸어 다니는 힘이 있어야 산에도 가고 뭘 볼 건데 의료가 안 되니까 병원에 한 번 갈려면 뭘 불러야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여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 특성상 보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조금씩 그렇게 하자고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각 행정에다가 간호직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이 간호직들이 서포트 조언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보건소 이런 쪽에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강화되어야....
근데 간호가 들어왔지만 의료 행위는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실제로 바뀌어가지고 간호직들이 와서 복지 일을 하고 있고 복지직들은 민원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동부권(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장승포동) FGI

(1)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지역 복지 파트너 공간 확보를 통한 서비스 연계

동주민센터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로당에 가든지 이렇게 할 때 매 번 만나서 혹시나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착형으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 공간 확보를 저희들은 우선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게 복지관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주민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가 같이 이렇게 조금 연합을 해서 파트너십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참여자 3)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복지사님들이 각 동별로 어차피 우리 동부권이니까 장승포 마전 능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경로당이 다 있기는 있는데, 좀 잘 되는 경로당이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복지사 한 분 한 분이 오시면 뭘 하시든지 연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경로당마다 다 찾아 갈 수는 없어요. 능포동 아주동 이런 한두 군데 정도를 정해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미용봉사단들이….(참여자 7)

마전동에서 머리하러 복지관까지 오기 힘들어요. 이런 면에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부터 우리가 다 지역으로 나가자.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서비스를 받기는 괜찮아요.(참여자 3)

보통 보면 아파트는 거의 안 오시고 이제 아주동 같은 경우는 일동 이동 삼동 주택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 할 적에 우리가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분들을 보통 세 분 네 분 모셔다가 그런 식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해주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참여자 7)

○ 대중교통 문제 해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장승포나 마전 능포 쪽에서는 여기 오려고 하면 차를 두 번 갈아 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오면은 늘 불안해요. 나이 80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오시면 차를 타고 오지 못하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하는 데도 30분이 걸려요. 이분이 주차하는 걸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빈번하게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교통이 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으면 참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고요. 일단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참여자 3)

이게 지금 일반 대중교통 노선으로는 안 되죠. 안으로 훅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대로상에서 내려서 무조건 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도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기존 대로 상에서 벗어나서 차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거리상으로는 자가용으로는 5분 10분이면 가죠.(참여자 9)

아주동 청소년센터도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큰 길에서 만약에 우리가 버스 노선이 이제 일반적으로 10번, 11번이 있으면 거기서 내리면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되면 16번 그거는 아주동 들어가야 되니까, 그 위치가 버스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장승포에서 오면 3000번을 타고 오면 그 노블 앞에 내리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가 자주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참 또 애매합니다.(참여자 4)

교통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또 제가 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민원을 듣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건 향후에 그냥 시 정책적으로 75세 이상 되신 분한테 최소 한 달에 10회권이라든지 뭔가 이런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냥 편하게 환승해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승차권은 아니지만 충전을 해 주고 안 쓰면은 소멸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합니다.(참여자 5)

(2) 지역주민의 욕구 및 대상자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 필요

지역마다 대상자의 특성이 너무 달라요.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히 일운이나 능포 이쪽에는 어르신들이 똑같은 무슨 복지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대상자에 맞는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3)

지역마다 형식적이 아닌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욕구 파악을 욕구 조사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옥포동에 있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욕구와 서비스와 능포동에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 그런 그 지역에 맞는 대상자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조사가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참여자 3)

우리 지역에 정책이라든지 추진할 때 이런 현장에서 민원이 이런 있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반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참여자 8)

(3) 복지 서비스 제공과 누락 및 중복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제가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녀분이 참 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혜택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너무 잘 사는데 보니까 동의 서류상으로는 이 집도 드려야 됩니다 해서 가서 보면 안 드려도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밖에도 못 나오고 친구하고 교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참여자 4)

(4) 알코올 등 중독 센터 설립 필요

여기 또 오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또 도시 지역을 오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일단 중장년층인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보면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오면 온 가게를 다니면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일일이 이제 연결을 해주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자기가 바쁘다고 안 해줘요. 우리 대상이 너무 많다. 누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저쪽에 사등 쪽에 있을 때도 좀 그랬어요.(참여자 8)
전화가 옵니다. 죽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한테 전화하다가 우리가 끊으면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도 경찰도 하고 119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혹시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죽고 싶다. 이러니까 나가면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문 열어주는데 30분 걸려요. 자기가 소리 쳐서 나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호를 불러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러주면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들어가서 보면 대화가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 게 조금 많더라고요(참여자 8)

중장기적으로 거제에서 볼 때 알코올 치유센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늘 알코올 가지고 있어서 보건소에 가면 또 보건소는 알코올은 안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알코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병원 가는데 21세기 병원도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해야 가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가 못 먹는다 하고 가는데, 가서 보면 술병은 너저분하게 다 있거든요. 밑반찬 주고 가서 가면은 술안주가 없어서 밑반찬 주라 하는 거지 밥을 먹기 위해서 밑반찬 주라 하는 게 아니라고. 거제는 알코올을 가지고 뭔가 치료하고 프로그램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참여자 3)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한 한 달씩 입원했다가 이거 치료 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는 반복인 거예요. 그러고 일하다 보면은 그냥 옥포 주변에 많이 다니니까 수변 공원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계시네 하면서 가 우리가. 그러면은 늘 술이 반술이나 돼 있는 분이라.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 해도 거제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알코올 치유센터라든지 그냥 가칭으로 이런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참여자 3)

(5)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의 필요

일상적으로 거제에서 있으면서 애들을 데리고 막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수변 공원이라고 해서 그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가 생겨서 가족들이 다 가서 이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젊은 층들도 그렇고,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마땅한 놀이터가 좀 이게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구조물로 세운 그런 단순한 놀이터 말고 어떤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놀이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순하게 놀이터라고 해서 딱 그렇게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 좀 복합 형통으로 해서 키자니아 같이 간단하게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또 여가도 좀 보낼 수 하는 이런 공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딸내미와 중인데 이제 일상을 들여다보면 학원 가는 거 빼고는 다 올리브영 다이소 카페 이런 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갈 데가 없대요. 결국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 또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 공간 활동 공간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어른들은 퇴근을 하면 술을 마시러 가든 클럽 활동을 하든 당구장을 가든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놀이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참여자 8)

2세, 3세 애들이 동물 같은 거 토끼라든지 있는 조그만 동물원, 기린이라든지 큰 코끼리, 사자 이런 동물원 아니어도 잔잔한 동물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6)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이 있으면 동물과 교감하면서 좀 더 정서적으로 발달이 된다고 하니 장승포 아주동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3)

거제면에 보면은 토끼 닭 사슴, 양 이런 데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제면이 있다 보니까 고현 장평 사등 쪽에서는 거기로 가기가 쉬운데 이쪽에 옥포 장승포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유치할 자리가 있으면 해서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참여자 3)

(6) 장애인 관련 자립 및 일상생활 지원 거점 기관 필요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탈시설, 자립 이런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을 주도하는 주 층이 지체장애나 뇌병변 처럼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장애인들 위주로 사회 시설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애광원에 계신 분들이 20여 명 이상 탈시설을 해서 자립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일상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활동보조인이나 공공 후견인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본인이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대처가 안 되는 그런 심리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가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밤낮 없이 전화를 해서 이래저래 고충도 토로를 하고, 아니면 하루에 그냥 본인의 일상을 보고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통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제도 보면은 IL센터가 있고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편중이 돼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좀 포괄적으로 거제시의 어떤 자리 옆에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하기에는 인력적으로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IL센터라든지 자립생활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도 이용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점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좀 폭넓게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IL센터에 접촉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건 있는데 그건 낮에 잠깐이에요. 그리고 활동 보조는 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집 청소해 주고 음식 해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혼자 그 시간을 다 오롯이 견뎌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좀 경증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 관리도 되고 하는데도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자기 일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전화기만 불들고 자기 눈 떠 있을 때는 아는 사람한테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그런 거점 기관에서 불러서 모아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맞는 뭔가를 만들어서 주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복지관에서 이렇게 각 기관 각 지역을 찾아가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한테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그런 거점 기관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기 상문동에 있잖아요.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져요.

(7) 복지 파트너십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및 사례회의 필요

복지담당자들이 능포 마전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례나 재가서비스를 위해 들어가서 보니까 반찬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를 해서 할려면 보장협의체랑 같이 다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서비스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든지. 전체적으로 꼭 굳이 사례가 긴급한 사례가 있어서 사례회의가 아니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세대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누락 돼 있는 세대 아니면 중복 돼 있는 세대도 걸러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지관도 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미장원을 컨택을 해서 그곳에 있는 자원을 확보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권역에 같이 모여가지고 사례가 아니면 대상자도 공유하고 가서 보니까 이런 집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더라 하면은 또 제도권에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동에서 할

거에요. 그런데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자원을 끌고 와서 같이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인 간담회 내지 사례회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참여자 3).

중간에 국장 라인이라든지 시설의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가 겪는 고충이라든지 느끼는 부부들은 좀 다르니까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좀 정례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 관리도 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9).

(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활성화 방안과 사무 공간 필요

진짜 가스 알람을 내가 그때 내가 가스 알람을 그게 또 3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제일 비싼 게 1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사장님이 이제 아는 분 지인이 돼가고 그래도 너무 비싸서 내가 그거는 못하고, 그다음 단계로 해 갖고 10만 원짜리를 깎아서 8만 원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10집을 해 드렸거든요.…(중략)… 심지어 우리는 우리 돈을 진짜…. 우리는 월급이 없어요. 진짜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음식하고 뭐 해서 다 갖다주고, 우리는 회의 수당도 꼴랑 그날 하루 종일 하면 이만 원. 다 그것도 옛날에 8개월 주다가 작년부터 12월로 바꿨죠.

저는 볼 적에 우리 전체 회의할 적에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사실 18개 면동에서 주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집 저집에 가서 음식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진짜 많아요. 근데 18개 면동 중에서 아마 우리하고 장평하고 한 몇 군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사무실에 옛날에 준 거를 없애 갖고 시청에 가고 난리를 지었어요. 있던 사무실을 왜 뺐냐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조금 받아놨어요.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면동 협의체는 아마 사무실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

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 임원들 회의할 사무실이 없으면 맨날 찻집에 가서 해야 되고 식당 가서 돈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

시에서도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를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또 지원이라든지 복지 그런 쪽으로도 협조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북부권(연초면, 장목면, 하청면) FGI

(1)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 종합복지관 건립

○ 권역 종합복지관 건립

> 종합사회복지관은 권역별로 설립을 한다고 한다. 장목이 너무 취약하다. 모든 면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연초는 고현과 가깝고 완전도시다. 하청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옆에 도서관이 있다...장목은 청사도 완전 열악하고.. 왜포에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관을 위치적으로 보면 연초, 하청, 장목 중 중간 정도에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장목에 아무것도 없으니 장목으로 해도 좋겠다.... 복지관만 건립해주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신다
>
> ... 그것보다는 접근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연초나 하청민들이 장목으로 가지는 상당히 어렵다. 연초는 고현에 가까워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2) 권역 인프라 활성화 및 연계 필요

○ 어르신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 하청이나 연초는 주민센터가 잘 지어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꼭 복지관이라는 것이 중앙에 또는 권역에 있기보다는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구성원들을 요소에 배치하여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관을 규모있게 지어놓고 우리 복지관 있다..이러는 것은 아무 의미가없다.
>
>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타지역에서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와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놀고 있는 택시 등 이용하여... 연초, 하청, 장목은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 보건/의료 연계 필요

하청에는 제대로 된 동네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개인병원을 늘리기는 어렵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보건소 등) 활용할 필요 있을 것이다.
보건소는 지금 진료 외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보건소 인력을 이용해서 진료와 증진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소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연초, 하청, 장목은 의료보건에 관해 상당히 열악하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려고 어렵고,,,인프라도 잘 안되어 있고...보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저는 멀리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초, 하청이 먼거리라고 할 수 없지만,,,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쉽지 않다. 어르신들은 먼 거리를 나가기는 어렵지만 '면사무소 가자' 하면 힘을 내신다...면사무로 통합하여.. 복지사, 다른 영역들이 연계하여 제공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존 인프라 활용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은 실정이다.
인프라는 학교가 가장 좋으니까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렵다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하청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초등학교 병설로 보내는 부모가 많다. 그처럼 지역의 인프라가 놀고 있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한 홍보 필요

> 우리 하청은 좀 잔잔한 편이긴 하다. 약간의 관람형이다. 코로나 플리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하긴 하는데....마을분들에게 참여독려 등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면에서, 거제시에서 해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힘이 쭉 빠진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꼭 설명을 해 주라고 말한다.
> 장목면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인지 잘모른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었다. 장목면은 올해는 협의체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

(3) 권역 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

○ 지역돌봄 치매안심마을

> 장목은 2개 마을 신청했다. 경로당에 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면단위 등 가까운 지역에 기존의 인력을 이용하여 파견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인력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지역의 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기적으로 면지역에 있는 인력과 지역에 있는 센터의 인력들 간의 교류가 있어야될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 건립

> 인프라를 늘릴 때, 연초는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있는 편인데, 아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너무 없다. 면 3개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다.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조손가정 등 아이들을 위한 것까지 엮어지면 좋겠다.

○ 새터민 등에 대한 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가정도 많지만, 연초면에는 이북노동자들이 많다(이북오도면, 새터민) 예전에 피난민들이 많이 연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별도의 단체는 있지만 이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 은퇴자 및 퇴직자를 위한 지원 필요

> 죽순, 대나무 등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얻는 사업들은 농업 등의 지원을 받고 하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기존의 어촌계,,, 거제의 장점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 바닷길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필요

> 저희 연초, 하청, 장목은 바닷길 테크가 없다. 예쁜 바닷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 아쉽다. 조금만 신경쓰면 우수한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북부권에 한군데라도 꼭 있으면 좋겠다.
> 매미성 앞에 있긴한데 눈에 띄지 않는다. 까페 거리를 활용해서 데크를 만들면 좋겠다.

○ 인식개선 필요

>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바다가 강점이다.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나 지역의 텃새 등이 심해 외지에서 들어오기가 힘들다. 지역적인 수용이 있는 인색개선 등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 거제시 한달 살기 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식 홍보문제가 심각하다. 권역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만 거제시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

4) 서부권(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FGI

(1)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 건강과 안부확인을 위한 주2회 반찬서비스 지원필요

다른 지역에는 거의 올 수가 없는 정도의 면적이라서 이게 만약에 거점형 복지관이 생기더라도 조금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반찬거리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같은 그전에는 종복에서 한 군데서 다 카바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배송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어르신들 가서 제가 검사를 해보면 그 한 가지를 주면 일주일 안 먹어요.
하루나 하루 밥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르신이 그대로 방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주는 거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손이 못 미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2회 정도만 넣어줘도 삼시 세끼는 안 먹더라도 이제 두 끼 정도는 식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많이 했죠.

○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반응 감지기 확대필요

홀로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혼자 사는 분들의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여름에도 한 분이 이제 죽었거든요. 알코올 환자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죽었는데 그것도 옥포복지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감지기 8시간 이상 감지기가 없으면 네 근데 그게 너무 한정적이라는거

갈수록 중장년도 고독사를 많이 하고 노인보다 요즘 중장년이

고독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면동에서 그거 다 못 지키거든요.
사실은 근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일이 감시를 요즘에는 기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등면을 중심으로 독거와 빈곤 노인이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고독사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 반응 감지기 확대 필요를 말씀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 경제적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아시겠지만 일본에 저는 가니까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정도 노령인구가 앞서잖아요.
항상 공원 같은 데 유족 공원 이런 데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청년을 안 주고 어르신한테 준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자리는 이제 한국도 우리도 이제 어르신 다 노령 인구니까 어르신이 아침에 학교 앞에 교통 정리하는 거 말고 유족 공원 같은 데 적어도 입장료 정도 받는 이런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엘리트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형 노인 일자리 같은 매개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시장형사업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목록이 너무 작은데 그걸 좀 확대해서 아까 말한 톨게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지원하는 노인문화센터 필요

○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건물을 활용

> 지금 둔덕에도 지금 체육시설이
>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
> .... 센터를 권역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이분들이 실제
>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이제 저는 디테일하게
>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새 구역 중에 한 곳에 이제 설립을 하는 방안
> .....
> 실내체육관도 있고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둔덕도 있고 사등도
> 있고 거제도 있잖아요.
> 지역주민이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큰 규모이긴 하지만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센터다 해가지고 막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노인의 특성상 배제되지 않는 전용공간 마련 필요

>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 시설은 기존에 있는 젊은 사람만
> 활용하거든요.
> 실제 그리고 거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문 체육입니다.
> 공간도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이 있긴 하지만
> 우리가 노인 전용공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 그 다음에 또 젊은 또 어른들이 약간 꼰대 비슷한 이런 게 있으니까
>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우리가 항상 뭘 하면 어른의 전용 이렇게
> 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어르신들만의 전용 그럼 어르신들
> 프라이드 강해지거든요.
>
> 우리 것이 생겼구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활용을
> 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 전용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늘 여기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기존시설에 장비 보강 필요

교장선생님 출신이 아니고서는 가지도 않을 뿐더러
10명이 있으면 한 분 정도 갈까 이용 안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자체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인구도 작긴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문화센터는 쓰는 걸 다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있고 예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갈수록 체육시설이 어르신 체육시설 쪽으로 증가를 하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제면에 딱 생겼다 해서 우리 서부권의 두 지역이 올 것이냐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뭔가를 기구를 더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는가라는 그때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둔덕 같은 경우는 차 타고 안 가면 못 가잖아요.

(3)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필요

○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필요

어떤 그런 게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이원화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구상을 분명히 뭔가 안에 어떤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했을 건데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이게 꼭 거기 중장기 발전계획은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 같은 영역인데 치매 안심마을 더 이렇게 더 늘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어르신들 중에 장애인 같이 포함된 어르신들이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노인만 따로 하기보다는 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시에도 .....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관리 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KTX 개통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종합서비스기관 필요(아동복지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제는 ktx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애들도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동에 대한 어떤 인프라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아동에 대한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출산율이 낮으니까

아동 기반 시설은 거의 사양되는 시설이긴 하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등쯤에 아동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

ktx 역사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이 더 많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조도 쪽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둔덕은 거의 아동이 없고 노인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생활권이 사실은 둔덕도 바뀔지 몰라요

○ 지역현안대응을 위한 행복디딤돌 기금 예산 확대(면동 예산차이 해소)

사각지대를 위한 제도권 밖에 우리가 이제 사실상 생계 영사는 이제 민간 주도인데 이게 동하고 면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 디딤돌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그거를 내가 이 동네에 하겠다라고 채킹을 해줘야 그죠 돈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현동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고 면단위는 저희 예산이 제가 와서 보니까 500만 원 있더라구요

행복 디딤돌의 예산이 모이면 적십자 기금처럼 저는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돈 많으면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데 적십자도 다 그런 식의 사실 기금을 내서 하거든요.

(4) 정신보건복지를 통합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필요

○ 알콜릭환자들을 위한 치유시스템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필요

알코올 환자들이 사등에 바닷가에 좀 많거든요.
가조도가 많습니다. 바닷가 쪽에는 원래 알코올 환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고 힘드니까 술을 먹어야 되고 그걸로 하루 한 끼를 때워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다.

예 우리 거제가 그게 없습니다. 알코올 aa 센터가 없거든요.
진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에 있어가지고 aa모임을 보건소에서 이제 큰 애들이 자유롭게 하게 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환자들의 어떤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 관리가 안 돼요 우리 거제는

알코올은 정신중에서도 알코올은 또 그 부분을 전공을 좀 따로 해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이 이렇게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고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알코올 특별합니다. 실제적으로.....

○ 보건과 복지가 이원화되지 않고 협업과 통합의 전달체계 필요

특히 우리 거제 지역이 도농 복합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치매 안심마을 만들어 놓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 안심마을과 과연 어떤 차별을 가 있는 건지 그럼 차라리 만들어 놓고 보건소가 아예 여기에서 출장 파견 출장 파견 안 하더라도 출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그런 게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이원화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구상을 분명히 뭔가 안에 어떤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했을 건데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은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 같은 영역인데 치매 안심마을 더 이렇게 더 늘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관리치료 시스템 필요

알코올은 정신중에서도 알코올은 또 그 부분을 전공을 좀 따로 해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네들끼리 공유를 하고 병원에 가서도 공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 이제 모인다는 거죠.

가조도 다리 밑에 이제는 이제 나와가지고 심심하고 하니까 뭐 하냐면 술을 먹고 외로우니까 자살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칼을 갖고 자기가 이제 안 죽을 만큼 찔렀거든요.
네 자해 행위를 하면서 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파출소가 너무 괴로운 거야 장평 파출소가 사흘들이 이제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우리 정신센터에서는 아이코 환자 실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해주고 싶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보건소 정신센터가 다 그렇습니다.

(5) 기타

○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유농업 필요

거제시 권역별로 이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제 이거 이거에 제가 좀 적어봤는데 네 우리 서부 권역은 도농 농촌 자원이 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융합적으로 조금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거제 시민들의 신체나 정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어르신들 심리 지원 안정으로 인해서 텃밭 가꾸기 그리고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거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의외로 어르신들이 그걸 좋아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우리는 한번 이걸 조금 논의를 해서 치유센터를 거제면 쪽에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 중부권(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장평동) FGI

(1) 획일적인 일회성 지원시스템보다는 지속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요

○ 단순 물품지원을 지양

> 지금의 우리 사회 시스템의 복지는 주는 복지 그냥 보여주는 복지, 그냥 감동이 없어요. 바보로 만드는 것, 니는 그것만 먹고 그대로만 살아라, 배는 안 고프게 해줄게, 동물원에 갖다 놓고 그냥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여자 2)
>
>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나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듯이, 복지도 요소 요소가 다 다른데 획일화 돼가지고 그냥 차상위 계층, 부자 가정, 조손 가정으로 꾸며서 재산만 해가지고 자식하고 연계가 안 되는데도,
>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서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
> 자립과 치유는 안 되고, 그냥 한 끼 한 때 뭐 반찬 저런 거 솔직히 반찬 봉사형이 좀 별로라 생각해요. 가뭄에 또 쌀 주고 이런 거 넘치거든요.
> 실제는 넘쳐요. 단순 물품 지원 이자성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 주민들 간의 교류나 네트워 조직화 필요

>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2주 만에 그것도 친구가 있지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관리 사무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관리소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밑에 이제 주민센터에서 문을 따가지고 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2주나 됐대요...
> 주민들 간의 교류나 네트워 조직화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젊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돌봄협의체 등의 여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활성화 시스템 필요

> 우리 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할려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부 다 보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전부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부분 통장들 그리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45세 이후로만 있지만 45세 이하가 없거든요.

○ 지역주민의 교류 및 소통의 문화 활성화 필요함(주민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200세대의 수급자를 한꺼번에 모아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고, 저희도 힘들고, 수양동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 복지관에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조그만 공동체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자주모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햇뜰안에 봉사단이라고 한 8명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위생관념도 잘 없으시고 청소도 안 하시고 하시니까... 사실은 잘 안 바뀝니다.
>
> 사실 안 바뀌고 그래서 지역 간의 이질성이 자꾸 생겨서 복지관 입장에서는 문화축제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수혜자들의 복지권 부분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있다.
>
> 200세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내지는 1세대 1세대의 결연 이런 것들도...
>
> 소프트웨어로 채워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간은 주민센터 지역마다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좀 없다.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

(2) 권역별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 수양동 및 장평동에 지역공원 및 문화센터 필요함

> 수양동은 주거 집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집중 지역이고 지금도 수양동 입구 초입구에도 아파트를 대규모 짓고 있고, 근데 근린생활시설이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단지안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데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은 산림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권역 사람들이 어떤 문화터전처럼 쓰일 수가 없습니다.
>
> 예를 들면 부산의 시민공원이라든지 거제의 독봉산 공원처럼 아니면 수변 공원처럼 문화의 메카가 되어야되는데 문화의 메카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 장평동에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

> 장평동이 하나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다문화센터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정들 하고 요리교실도 해봤거든요... 장평동이 생각보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지역에 보면 그런데 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있으면 어차피 문화는 이제 다문화로 가야 되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요.

○ 고현동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증원 배치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급자가 배 이상 많고, 고현동이 제일 많아요. 면보다는 몇 배가 많고 상문동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넘게 좀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급자 위주로 좀 더 하다 보니까...사례관리사 한 명이 이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서 타 면으로 가야 할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사례관리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3) 거제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개편

> 거제시의 전달 체계 약간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융합되어가지고 전달체계가 착착 구성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정책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달 체계가 약간 비정상적인 ...
> 예를들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지역사회복지관이에요. 근데 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죠.
> 일반 주민들이 통합돼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의 점유율이 엄청 높죠. 융합되면 좋은데, 근데 점유율이 높게 되면 다른 계층들이 복지관에 기피하게 되어, 복지관이 아무리 프로그램으로 뭘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 전문적 서비스 기관이 부족함(정신장애 및 알콜리즘을 지원하는 기관 필요)

>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좀 부족하다. 특히나 정신장애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정신장애가 그 안에 필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 거제시는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걸 전문적으로 갖춰야 될 기관들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
> 그래서 햇뜰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알코올리즘과 정신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신장애는 알코올리즘에 유익하게 영향을 못 미치고, 알코올 중독은 정신장애에게 유익하게 영향을 못 미치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가중되는 거죠.
>
> 장평동은 음주하고 아까 알코올 하는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 권역별로 하드웨어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찾아가는 소규모 시설이 필요함

>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권역이 워낙 넓습니다. ...
> 그래서 권역별로 뭘 할 센터는 필요한데, 하드웨어 중심인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권역별로 소규모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은 필요하겠다.

(4) 아동 청소년 문화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가 필요함

○ 고현동을 중심으로 전문지원 기관이 필요

> 청소년 문화가 별로 없다. 청소년 문화는 중부권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청소년수련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
> 고현동은 아동 청소년이 장소가 없고요 놀거리도 없고요. 그냥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놀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지들끼리 모여 다녀서 노는 게 다예요. 특히 이제 수양동이나 장평이나 상문동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사실은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나 케어들이 부모가 잘 하세요.
>
> 근데 고현동은 원룸도 많고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저소득층이 좀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돈 벌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케어나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나마 지역아동센터 오면 돌봄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니고 또 훔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고현동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간, 놀이 공간, 놀이거리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 그리고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이 놀거리 놀권리 해가지고 골목 놀이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초록우산

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있는데 아동과 관련된 중심된 아동복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아동을 위한 중장기적인 놀이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 돌봄협의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아동 청소년과에서 돌봄협의체가 있어요.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이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이게 교육청에서 돌봄협의체로 운영되던 것이 시로 이관이 됐는데...
돌봄협의체들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 네트워크도 좀 하고 종사자들끼리 좀 모이자 그랬는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서....
시가 못하겠으면 저희끼리라도 조금 이런 돌봄협의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건지 그런 것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5) 시민교육 및 부모교육이 필요함.

하나 진짜 복지가 우리가 시스템이 가야 된다는 저는 가장 기초가 교육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30대와 40대의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그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한 명만 놓자, 두 명만 놓자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커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세대는 형제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이 야단하면 참고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아기를 낳아서 키우니까 또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상담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낮에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주로 못 들으시고...

Ⅳ. 권역별 정책 방향

Ⅳ. 권역별 정책 방향

1. 권역별 정책 제안 기본원칙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을 위한 주요 방향을 설정하였음

○ 첫째, 거제시는 경상남도 남해안 중심부로 면적 기준 국내 2위 도서지역이며, 9개 면과 9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제 및 지리적 독립성과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임. 인구규모는 경남의 7.4%이며, 최근 4년간 연평균 1.13% 인구감소가 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9.2%로 연평균 3.2%씩 증가중임. 그중에서 남부면, 둔덕면, 동부면은 인구감소가 심각하며 소멸위기 대응전략이 시급한 지역임. 향후 외국인 증가 대비 상호문화시대에 맞는 사회통합정책 개발이 필요함. 실증자료 조사를 통해서 복합치유시설 및 마을돌봄 등과 연계된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보건과 복지 부문의 양적 수준 및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었음. 거제시 사회복지기관의 현황은 노인 시설이 92개소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 시설 45개소, 아동시설 19개소, 지역시설 17개소, 청소년 시설 6개소, 여성가족과 권익증진 시설은 각각 3개소, 영유아 시설 1개소로 분포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시설 분포에 편차가 있음

- 그러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관 현황을 기반으로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을 위한 대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충분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도심권외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대비한 고령사회 대비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다원화시대에 맞는

가족친화 접근,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복지 구축,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거제시 권역별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영유아 및 아동 양육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개발, 청소년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사업 마련, 청소년 여가생활과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서비스 마련,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및 가사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 방안 마련, 장애인 인권 신장,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마련,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역 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 및 돌봄 정책 마련,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홍보, 다양한 계층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으로 나타났음

- 지역주민 욕구는 거제시 5개 권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동돌봄은 동부권에서 양육부담이 제일 높았으며,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도 제일 높았음. 노인돌봄과 기초생활유지는 남부권에서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일 높았음. 장애인돌봄은 남부권에서 어려움을 높았고,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는 남부권과 북부권이 높았음

- 또한, 거제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 중에서 고용,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아동돌봄 순으로 정책 시급성이 높았음. 권역별로는 남부권은 어려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는 상반되게 모든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정책의 시급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력체감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동부권에선 고용을 제외한 사회보장의 대부분 영역이 정책시급과 노력체감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북

부권과 서부권에선 사회보장의 모든 영역이 노력체감도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정책시급성은 장애인돌봄, 고용, 노인돌봄, 아동돌봄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부권은 정책시급성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노력체감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고용, 정신건강,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책의 편의성과 계획의 구체성을 위해서 거제시 지역사회를 5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지만, 거제시를 5개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5개 권역별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의 배정 및 정책 실효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므로 거제시 실태 및 현황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5개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거제시 권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향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민선8기 정책방향, 거제시 현안과 욕구조사 등을 검토하고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은 이러한 선행 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5개 권역별 핵심사업과 거제시 권역별 공통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권역별로 상이한 것도 있었지만, 공통적인 현상도 있었음. 남부권에서는 대중교통의 인프라 구축,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 지원 기관 필요, 지역특화 상품 홍보 및 판매부스 설치, 산림녹지를 활용한 쉼과 치유센터

설치, 권역별 거점기관 설치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및 주민조직화, 면단위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제시되었음

- 동부권은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 대중교통 문제 해결, 지역주민 욕구 및 대상자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 서비스제공의 누락과 중복방지 대책 마련, 알콜중독센터 설립,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마련, 장애인 자립 및 일상생활 지원 거점기관 설립, 복지파트너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도출되었음
- 북부권은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의 종합복지관 건립, 권역 인프라 활성화 및 연계를 통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보건의료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에 기능강화, 권역내 특성을 반영한 치매안심마을 확충, 지역아동센터 건립, 새터민 지원, 은퇴자를 위한 지원이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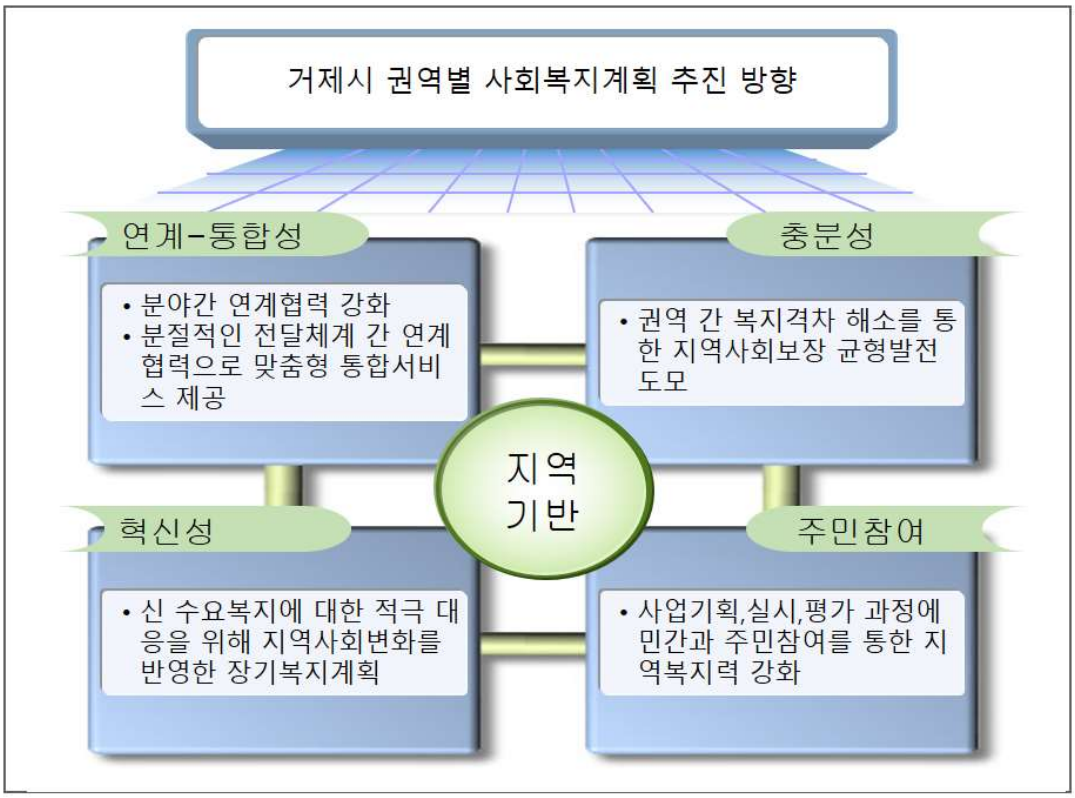
- 서부권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반응 감지기 확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건물을 활용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지원하는 노인문화센터 등의 전용공간 마련과 기존시설의 장비 보강,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KTX 개통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서비스기관 필요, 지역현안대응을 위한 행복디딤돌 기금 예산 확대, 알콜릭 환자를 포함한 정신보건복지를 통합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과 복지가 이원화되지 않고 협업과 통합의 전달체계,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유농업이 제안되었음

- 중부권은 주민들 간의 교류나 네트워 조직화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수양동 및 장평동에 지역공원 및 문화센터, 장평동에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 고현동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증원 배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개편, 정신장애 및 알콜리즘을 지원하는 기관, 찾아가는 소규모 시설, 아동 청소년 문화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가 제안되었음

- 그러므로 권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필요하지만, 전체 거제시 권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것이 많았음. 권역별의 특성을 반영한 중심적인 핵심사업과 거제시에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수립해야할 공통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확대를 통한 공급역량을 확충하는 것보단 지역사회의 새로운 위험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관을 연계 및 통합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과 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 그러나 보건의료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는 제8기 거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다를 것이며, 2023년부터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우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 사항은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 본 연구는 거제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권역별 주민욕구조사를 고려하여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림 9]와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음



[그림 9]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의 기본 원칙

2. 권역별 사회복지정책 제안

<표 19> 권역별 사회복지정책 제안 분류표

	정책 제안	남부	동부	북부	서부	중부	통합
1	사회서비스 통합관리기관 운영						◎
2	메타 복지관 운영	◎		◎	◎		
3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전환	◎	◎	◎	◎	◎	
4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	◎	◎	◎	◎	
5	복지 이·통장 제도 운영	◎	◎	◎	◎	◎	
6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시범사업		◎	◎			
7	알코올·정신장애 지원 강화		●			●	◎
8	지역 내 장애인 주거지원체계 마련						◎
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	◎
10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확충						◎
11	지역내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	◎	◎	◎	◎	
12	지역아동센터 건립 필요			◎			
13	권익옹호기관 통합운영						◎
14	쉼터 통합운영				●		◎
15	중증장애인 단기돌봄	◎	◎	◎	◎	◎	
16	치유를 위한 농업복지단지 육성				◎		
17	쉼과 힐링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					

● : 5개 권역 통합사업이지만, 중점 추진 지역을 의미함

1) 사회서비스 통합관리기관 운영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현재 거제시에는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각종 바우처 등과 같은 대상자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별로 제공기관도 법인, 기관, 단체, 협동조합, 개인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제공기관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차등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에 편차 많음

○ 거제시 지역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거제시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총량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는지 파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내부 역량과 수행실적, 품질관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필요

○ 제공기관의 역량과 서비스품질에 따라 제공기관을 재편하여 새로운 거제시 사회서비스 통합관리기관을 운영

○ 통합관리기관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간의 연대와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전문화 함으

로써 시민이 신뢰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 활동내용

○ 거제시의 특성과 수용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기획하여 보급.

○ 신규사업개발-전문가 회의, 사업메뉴얼 개발.

○ 교육컨설팅지원-제공기관 교육, 사업컨설팅, 지역연계교육.

○ 품질관리평가-통합관리, 모니터링 현장점검, 성과분석, 평가보고.

○ 사회서비스 홍보-홍보관리, 정보제공, 홍보물제작

○ 종사자 안전・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권익활동 강화 지원

(4) 구성 및 예산

○ 통합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 인력확보(최소 6인)

○ 예산 년간 300,000,000원

(5) 제도 준비사항

○ 거제시에서 기존 제공되고 있는 사회 총량 조사

○ 중앙사회서비스원, 광역사회서비스원 운영 모델 조사

○ 통합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 마련

2) 메타 복지관 운영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현장상담을 강화하여 주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개편함. 이러한 공공전달체계의 변화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되어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민간의 전달체계는 지침상의 한계로 네트워크 참여가 제한되거나 거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예방과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기존의 민간복지기관이 물리적 환경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는 비용의 과다와 운영의 한계가 존재하며, 거제시의 2개의 복지관은 가까운 지역에 서비스가 한정적이며, 복지관이 먼 곳은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을 할 수 없음. 새로 복지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시설의 관리 운영비의 추가 지출되며, 시설물 찾아가는 현장서비스가 아닌 건물 중심의 서비스로 회귀 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다변화된 욕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배제한 현장실무형 ‘메타 복지관’ 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신규로 건립하기로 한 권역별 복지관을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

○ 물리적 복지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 개발

○ 건물과 조직관리를 위한 경직성 예산을 절감하고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

하여 충분한 효과 마련.

○ 지역사회문제는 지역사회 주민이 해결하도록 복지사는 코디네이트 역할을 통해 지역자원을 네트워크 하여 문제에 개입.

○ 지역사회 전체가 복지서비스의 장소가 되고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메타복지관을 운영.

○ 제주시스마트복지관 모델(시범사업 2016년-2018년)을 참고하여 거제시 모델 구축

○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완결형(Mobile office) 서비스 제공

- 현지 완결형이란 지역사회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상품(서비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영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현장이 곧 사무실이고, 전자 네트워크 자체가 사무실(Virtual office)이며, 컴퓨터와 사회복지사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무실(Mobile office)임.

○ 평생교육사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활성화

- 건물 없는 복지관은 최대 고민은 주민들이 이용시설로 인식되어 온 복지관 프로그램실이 없다는 것이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경로당・주민센터・경로당 등 지역공간과 단체를 통해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함.

○ 지역주민조직 활용 지식전이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업담당자 즉, 서비스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 그러나 메타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코디네이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발견과 해결은 주민들에게 맡기고 사회복지사는 주민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내 자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3) 활동내용

○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

○ 지역사회에 공급가능한 공공기관, 복지기관, 사회단체, 민간자원 등 자원 파악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에 개입

○ 이장・통장・일반시민들에 대한 지역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사무실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100% 전자문서 및 결재 시스템 마련

○ 건물이 없음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아웃소싱 확대

○ 주민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개발

(4) 구성 및 예산 : 300,000,000원

○ 초기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메타 복지관 운영(2명씩 배치)

○ 3개권역×100,000,000원 = 300,000,000원

○ 인건비, 차량비, 주민교육비

(5) 제도 준비사항

○ 거제시 메타복지관의 사업모델 개발

○ 권역별 복지자원 조사 및 권역 선정

○ 거제시 메타복지관 조례 마련

3)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전환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기능이 모호해서 내용적으로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

○ 협의체의 3대 기능인 협치·연계·통합을 표방하고 있으나 문제는 운영지침에 연계와 통합 기능에 관한 내용이 모호

○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관 관의 협력구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관점

○ 관이 권위적으로 주도하고 민은 종속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행태가 여전하여 양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민·관협력 조직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 면·동 협의체의 기능이 기존의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할의 차별성이 없으며 기능과 서비스의 중복성이 나타남

(2) 추진방향

○ 면·동 협의체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서비스 제공이 1차 목적이 아닌 서비스 조정의 역할을 새로 재정립

○ 면·동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지역에 있는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목록화

○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

○ 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네트워크를 통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3) 활동내용

○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조사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 활용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지역사회 자원의 통합 및 조정 배분

(4) 구성 및 예산 : 383,000,000원

○ 봉사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 면·동 협의체 재구성

○ 한 지역당 회의비 50,000원×20명×18회 = 18,000,000원

○ 한 지역당 교육비 및 운영비 = 5,000,000원

○ 18개면동×20,000,000원 = 360,000,000원

(5) 제도 준비사항

○ 면·동 협의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모델 개발

○ 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4)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진행중이며, 경상남도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임

○ 돌봄(Care)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조직 구성이 필요함

○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실시에 맞추어 거제시 지역에 맞는 읍면동 단위의 통합 돌봄 모델 선제적 개발이 필요함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2) 사업의 추진 방향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 돌봄 환경 조성

○ 다양한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의 연계 제공을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 공공과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 네트워크 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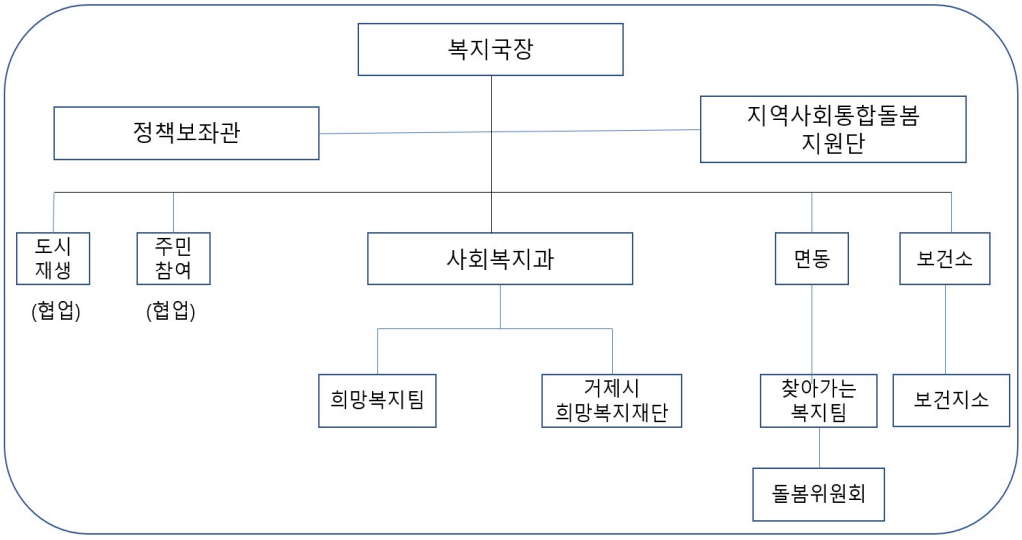
(3) 사업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 사업내용: 서비스 대상자 발굴 또는 돌봄대상자에 대해 안부확인, 반찬배달, 생필품 지원, 돌봄위원회 구성 등

(4) 사업 추진체계

○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단 조직도



[그림 10]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단 조직도

○ 면동 돌봄위원회

- 18개 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돌봄위원 구성
- 면동별 돌봄계획 수립
- 돌봄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 실시
- 면동별 돌봄회의를 통한 대상자 및 서비스 결정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안부확인, 정서적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및 협력

○ 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 면동 돌봄안내창구 운영
- 면동별 돌봄계획 수립
- 면동별 돌봄회의 참여
-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
- 케어메니저 배치(면동에 배치된 간호사 업무 분장)

○ 보건소 및 보건지소(지역사회통합 돌봄 담당)

- 돌봄대상자 돌봄플랜 공동수립
- 돌봄대상자 건강상담 및 보건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실무총괄 진행
- 거제시 보건복지의료 협력체계 및 자원연계
-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단 운영 지원

○ 희망복지재단

-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거점센터(중간지원조직)
- 면동별 돌봄회의 참여 및 자원 연계
- 돌봄위원 역량 강화 지원 교육
- 면동별 돌봄센터 활성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단 운영 지원
- 전담인력 최소 2명 이상 배치

○ 거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단

- 보건과 복지관련 교수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공공보건의

료지원단, 희망복지재단,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의 15명 내외로 구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효과성 및 평가연구 사업
- 정책 자문 및 관계자 교육 실시

(5) 타 시군 사례

○ 고성군
-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회화면)
- 고성군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 중
-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수행중

○ 사천시:
- 2019년 12월부터 3년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동서동)
- 2022년 11월 시범사업 만족도 용역보고 및 성과보고회
- 2023년 사천시 전 읍면동으로 확대실시 계획중
- 용역보고서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담인력 2명 배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전화을 중시므로 추진체계 제시됨

(6) 사업비 : 116,000,000원

○ 면동별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비: 36,000,000원(1개 면동별 200만원)

○ 희망복지재단 전담인력 2명 인건비: 80,000,000원

5) 복지 이·통장 제도 운영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스스로 지역사회와 단절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단절된 세대에 대해 이웃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신속한 안전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실천 노력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자 발굴은 물론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임

○ 전국적으로 '송파 세모녀사건' 등을 계기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면동단위 인적 안전망으로써 통장 및 이장 등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으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통장은 마을이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주 임무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로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시책을 잘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통장과 이장의 지위와 권한의 명확한 규정과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 특화발전지원 수당을 공약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70번 과제로 이장·통장 처우개선이 있음

○ 행안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시 기본수당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고, 인상액은 '23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가 될 것'으로 밝혔음

○ 통장·이장 기본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50% 인상되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월 10

만원에서 100% 인상한 20만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의 인상된 것임

○ 그러므로 통장·이장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행정 활동지원을 위한 기본수당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이·통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구성·운영하여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위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확립 등 공공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역할을 목적으로 함

(2) 추진 방향

○ 기존 이·통장 제도와 다른 새로운 제도가 아닌 이·통장에 복지 관련 과업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부여

○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망문 및 모니터링으로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원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자원발굴 및 연계

(3) 활동 내용

○ 복지 이·통장은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등 임무 수행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시 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추천 → 면동 맞춤형복지팀장 방문상담·지원 등 조치

○ 적극적 자원발굴 및 연계, 일상생활 중 인지된 위기가구 정보 면동에 통보

(4) 구성 및 예산 : 480,600,000원

○ 복지 이·통장: 거제시 393개 마을 이·통장으로 구성

○ 예산

- '복지 이·통장의 집' 문패 제작 - 20,000원×400개 = 8,000,000원
- 복지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 1,000,000원
- 복지 이·통장 활동비 : 100,000원×393인×12개월 = 471,600,000원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예산 반영 예정)

(5) 제도 준비 사항

○ 조례 개정: 이·통장의 임무에 대한 개정

○ 복지 이·통장제 취지 및 역할과 임무, 위기가정 발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복지 이·통장 위촉장 수여와 및 특강 및 퍼포먼스 필요

○ 이·통장의 수당 증액(국정과제와 연동)

(6) 타 지역 사례

○ 복지 이·통장제도는 전라남와 경기도의 시군에서 현재 실시중

6)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시범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마다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가 달라 이에 대한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제공에 누락과 중복이 발생함

○ 현행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 충족 및 서비스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음

○ 전국적으로 민원120 콜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도 2022년 5월 18일부터 ‘한번-콜(120)’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콜(120)’은 상담 전화이기에,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용자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욕구 사정과 이용자의 욕구에 탄력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추진 방향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북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거제형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함

-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전북 6개 시・군(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진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북과 전남에서 확산 중임

○ 거제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기존 복지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권역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체

권역으로 확대

○ ‘한번-콜(120)’과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통합한 형태의 지역맞춤형 서비스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상담과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활동 내용

○ 사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거동 불편 노약자, 중증 장애인, 기타 시장·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활동 내용 :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심부름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 필요한 생활 욕구를 무료로 수행해 주면서 사례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 자원 연계까지도 함께 진행하는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 세부 서비스 내용

- 민원업무 대행 및 전달(주민센터, 시청, 건강보험공단, 한전, 세부서, 법원 등) : 각종 서류발급 등 대행이 가능한 업무
- 법률상담연계(법률 홈닥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시장보기 :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 시장보기
- 은행업무(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예금인출, 공과금납부, 계좌송금, 입금, 통장정리, 통장재발급 등
- 물품배달 : 구매 또는 기타 생필품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
- 가전제품 수리대행(수리업체) : 가전제품 수리 접수
- 일상생활 지원(대상 가정) : 전구 교체, 물건이동, 교통카드 충전, 택배접수, 휠체어 수리, 스위치 교체, 열쇠 복사 등
- 정서적 지원(대상자) : 말벗 지원, 안부 전화

- 병원약처방 대행(내과, 외과 등 대행으로 처방전 발급 가능한 병원) : 사전에 병원과 협의 후 처방전 발급 진행 가능

○ 이용 시간 : 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4시 접수분까지)

○ 이용료 : 무료

○ 서비스 제한 대상 : 사회서비스 수혜자(장기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4) 예산 : 200,000,000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00,000원

(5) 제도 준비 사항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 전화접수 인원 1명과 심부름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2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심부름센터를 설립

7) 알코올·정신장애 지원강화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경남의 정신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0년 증감률은 경남 전체가 2.05% 증가하였음. 거제시는 7.35% 증가하였는데, 이는 18개 시군 중 2위의 결과로 양산시 7.12%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증가세를 보였음

○ 알코올 중독의 유병률은 13.4%로 우리나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으며, 자살(40.9%), 강력범죄(30% 이상), 성범죄(2011년 19,498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경남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11.2%이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39세(13.2%), 50~59세(12.4%))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제시의 경우 전체 15.8%로 경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거제시의 월간 음주율은 전체 53.4%(남자 68.0%, 여자 37.2%)로 나타나, 경상남도 전체 50.3%보다 높았음. 연령대별로는 30~39세 66.2%가 가장 높았으며, 2020년 대비 3.4%p 증가하였음.

○ 또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16.5%(남자 19.5%, 여자 11.4%)로, 경상남도 전체 16.2%보다 높았음. 연령대별로는 30~39세(21.9%)가 가장 높았음.

○ 조현병, 알코올 의존 등 정신질환의 치료는 당사자가 문제를 인정하기까지 작용하는 심리적 장벽, 치료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편견, 전문 치료기관 및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부터 쉽지 않음

○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 치료 이후의 재발 방지,

직업 연계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까지 필요한 개입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중독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일련의 정신장애 관련 시설들이 적절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거제시민의 알코올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태임. 구체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은 전무하고, 정신의료기관은 3개 기관이 존재함(병원 정신과 1곳, 정신과의원 1곳)

○ 더 나아가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

○ 더구나 FGI 결과,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알코올 관련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많고 이들을 위한 치료 등 개입을 위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소와 어업 등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추진방향

○ 2022년 현재, 경남에는 5개 지역(창원, 마산, 김해, 양산, 진주)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20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부에서 알코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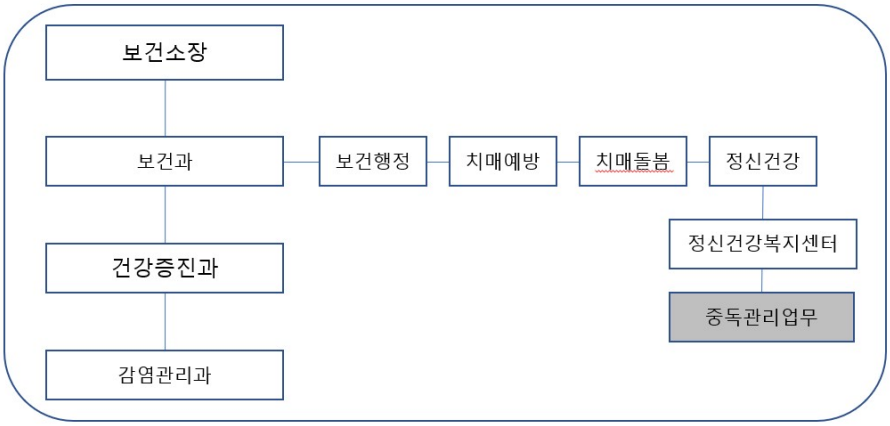
○ 특히, 거제시의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없는 상태이며,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물증상관리 교육 등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알코올 관련 어려움을 가진 주민에 대한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이 필요함

(3) 추진 방안

○ 1안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임
-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정신건강상담
- 사례관리(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정신건강 조기검진(선별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사례관리)
- 사업추진체계(안)



[그림 11] 거제시건강복지센터 사업추진체계(안)

○ 2안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함
- 2022년 12월 기준 거제시 인구는 236,662명으로,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기준으로 인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시·군·구라 하더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설치 가능성은 있음
- 지역사회 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상담・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필수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개입서비스(알코올문제 신규발견・이용체계 구축, 고위험음주군 조기발견・단기개입), 중독질환관리사업(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구축,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중독질환가족 지원사업(알코올중독자 가족 신규발견・이용체계 구축, 사례관리, 가족모임지원), 중독예방・교육사업(취약계층 알코올문제 교육사업, 인식개선・홍보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 구축), 그리고 거제시 특성에 따른 알코올중독 문제 사업 수행

(4) 사업비 / 준비사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의 예외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가능성 결정 필요(※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 정신장애인(알코올문제 포함)에 대한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 필수

(5) 타지역 사례 및 프로그램

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심리지원

○ 마음건강검진

- 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정신건강의학과 초진(해당 의료기관 1년 동안 미방문자)에 해당하는 경우)
- 서비스내용: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3회까지 지원), 검진·상담 시 발생되는 비용·본인부담금 1인당 8만원까지 지원
- 방문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1회 방문시: 4만원, 2회~3회 방문시: 각 2만원)
- 약제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1차 방문시 우울 등 선별검사 및 평가, 2~3차 방문시 결과에 따른 추가 상담실시

○ 마음안심버스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편견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정보제공,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 서비스내용: 스트레스 측정·상담 (심박변이도 측정하여 자율신경상태 및 균형정도 분석 후 스트레스 관리상담),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가상의 힐링여행, 마인드힐링, 안구운동·집중력훈련), 정신건강척도검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 자살예방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 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서비스내용 :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네병·의원의 우울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스트레스・우울감 등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등) 등으로 병·의원에 방문하신 분에게 우울검사 진행, 결과에 따라 보건소 심층상담 연계

□ 중독지원

○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 대상 : 서울시민 중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
- 서비스내용 : 회복지원팀(실무자 1인+회복자상담가 2인)구축・활동, 알코올 대상자 사례관리, 상담(방문상담, 내소상담, 거점상담, 유선/온라인상담),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알코올 대상자를 위한 각종 알코올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알코올문제 예방교육 실시, 지역주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교육 및 음주문제 인식개선 활동

○ 회복자상담가 지원 사업

- 대상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상담가 양성 교육과정 참여자 회복자상담가 양성교육 자격요건: 알코올사용장애 진단 후 만 2년 이상 단주 중인 회복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치료 유경험자/중독관련 지역사회기관 이용 유경험자/지원목적이 경제적 소득이 아닌, 회복과정에 목적이 있는 자에 해당될 것,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한 회복자상담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양성된 회복지원팀으로 활동 중인 회복자상담가

- 서비스내용 : 회복지원팀(실무자 1인+회복자상담가 2인)구축 및 활동, 알코올대상자 사례관리, 상담(방문상담, 내소상담, 거점상담, 유선/온라인상담),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알코올 대상자를 위한 각종 알코올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알코올문제 예방교육 실시, 지역주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교육 및 음주문제 인식개선 활동

□ 당사자 및 가족지원

○ 동료지원가 지원사업

- 대상 : 정신건강관련기관 이용 당사자 중 동료지원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 서비스내용 : 동료지원가 양성(동료지원가 양성교육 80시간 진행) 동료지원가 지원내용: 안정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채용정보제공, 동료지원가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동료지원가모임 운영, 동료지원가 역량강화교육 실시

○ 인권옹호 문화조성 사업

- 대상 :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 서비스내용 : 당사자 인권강사 활동지원(양성과정 ‘이어달리기’ 수료 및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된 당사자가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10데시벨 기획단 활동지원(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문화컨텐츠(라디오, 영상, 캠페인 등)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당사자 가족지원 사업

- 대상 :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가족
- 서비스내용 : 가족지원활동가 양성(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지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가족지원활동가 양성・활동지원),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대표 모임(모임・교육을 통해 가족대표의 역량강화를 돕고 가족모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나. 광주광역시 열린마음상담센터

○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열린마음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문제와 자살위기 관리를 시도하고자 마련된 센터임

○ 영구임대 단지 음주문제, 자살문제, 만성화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독센터에서 위탁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특히, 취약지구나 영구임대단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 복지관에 사무실이나 자리를 임대하여 상주하여 마을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예산

○ 1안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인력 재배치

○ 2안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

8) 지역 내 장애인 주거지원체계 마련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장애인의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고, 1996년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적인 삶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며 세계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음

○ 그러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령화와 1인가구화는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노령화와 1인가구화는 가족중심의 재가보호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를 발생시킴

○ 지원주택은 최근 강조되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독립생활 혹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절한 주거복지 대책으로 ‘공공주택’과 ‘휴먼서비스’의 결합 제공을 혼자 힘으로 독자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체계를 의미함(남기철, 2019). 쉽게 표현하자면 “서비스가 붙은 집”(염형국・김도희, 2018)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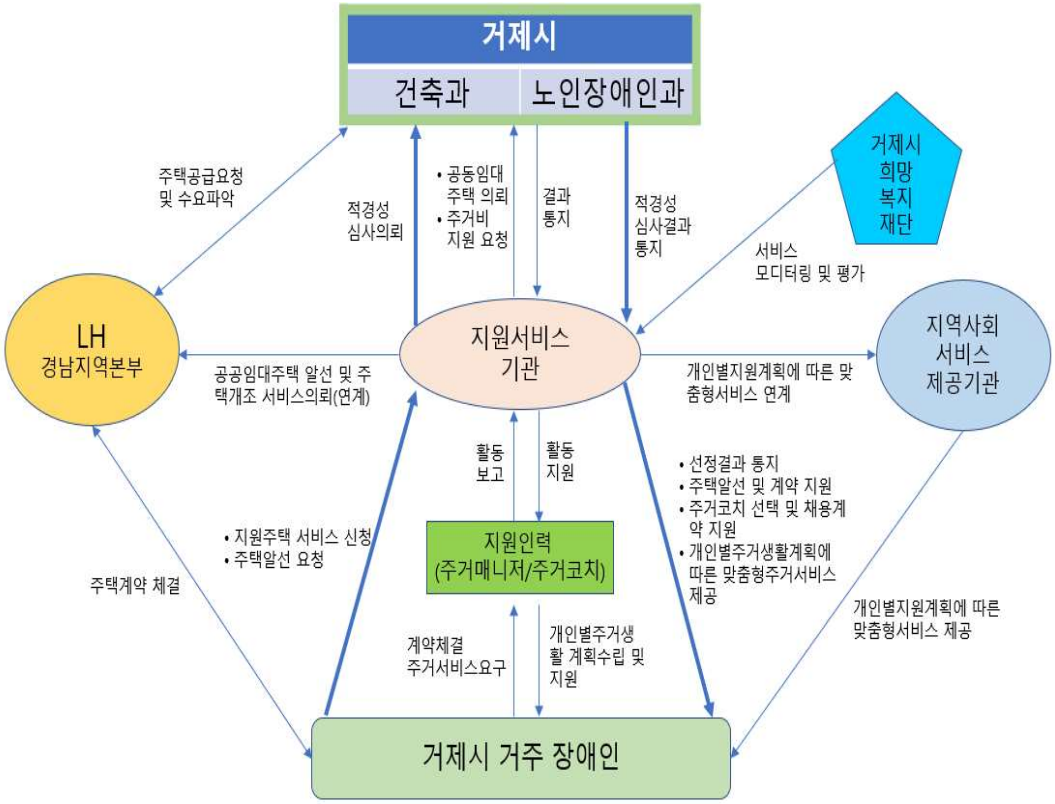
○ 거제시에 지원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민・관・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거제시와 LH 경남지역본부는 집을 공급하고 거주자를 선발, 운영기관은 거주인의 주거서비스와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지원주택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율적인 일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함

- 첫 번째는 영구성으로 영구적 거주가 물리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입주자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영구성이 있어야 함
- 두 번째는 저렴성으로 지원주택의 임대료 부담은 입주자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50%를 넘어서면 지원주택으로서 의미가 없음
- 세 번째는, 안전성과 쾌적성으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는 ‘최저주거기준(혹은 그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적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함
- 네 번째는 주거안전성에 초점을 둔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지원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이 담보되어야 함.
- 다섯 번째는 역량강화 독립성으로 입주자들이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추진 방안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추진 체계



[그림 12]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추진 체계

○ 지원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흐름도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20> 지원주택 공급 흐름도 및 역할

건축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LH 경남지역본부	노인장애인과	지원서비스 기관
· 지원주택 공급계획수립 · 수요조사(물량 및 예산확보)	· 제공기관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 기타 운영 관련 논의	· 지원주택 공급	· 입주자 및 제공기관 모집공고 · 제공기관 선성 및 지원 · 제공기관 지도 및 감독	· 입주자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보고

○ 지원주택 공급 물량 및 방법

- 지원주택 공급 물량은 LH 경남지역본부에서 제공함.
- 지원주태 공급 방법은 거제시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LH 경남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을 우선 확보함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기간 : 3년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모형

- 거제시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시범운영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형’과 주택을 지원하지 않는 ‘자가형’으로 구분함

(4) 시범규모 및 예산 : 140,000,000원

○ 거제시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시범운영은 3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함

<표 21>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목표 수준

	년차별 시범사업 운영 목표수준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주택	공급형 4개호	공급형 4개호	공급형 4개호
지원기관	운영기관 1개소		
지원인력	주거매니저 1명 주거코치 2명	주거매니저 1명 주거코치 2명	주거매니저 1명 주거코치 2명
지원 예산	14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 지원주택 관련 지원서비스 운영예산 지원의 범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임대료,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 서비스 지원 인력인 주거매니저 및 주거코치의 인건비, 지원서비스 관련 각종 사업비 포함
- 공급형 초기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리모델링 관련 비용

(5) 제도 준비 사항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지원주택 구비 요건 및 입주지 조건 규정

○ 지원주택 운영규정 및 매뉴얼 준비

- 지원주택이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정책으로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천 현장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이 필요함.
- 매뉴얼은 최소 8개 영역이 필요함.

  첫째, 지원주택 공급기관의 역할과 범위

  둘째, 입주자 자격과 선정절차

  셋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조건 및 선정절차

  넷째, 지원주택 입주 및 퇴거 절차

  다섯째, 주거유지서비스 제공원칙과 절차

  여섯째, 운영인력인 주거코치와 주거매니저의 역할과 배치

  일곱째, 지원주택 평가

  여덟째,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기준 거제시의 등록외국인은 6,641명으로 전년 대비 1,661명,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는 27.02명으로 6.42명 감소하며, 등록외국인 수는 도내 3위,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는 5위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거제시의 외국인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평동・아주동・옥포1동에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면동별 외국인수는 장평동 1,622명(21.3%)이 가장 많음

○ 2020년 기준, 거제시 외국인은 취업이 2,885명(43.4%), 거주가 2,288명(34.5%)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77.9%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70.2%와 29.8%였는데, 여성의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취업과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50%를 상회함

○ 조선업 등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7년 이후 등록외국인이 줄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되었던 각국의 물류산업이 활성화되고 한국의 조선업 수주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외노동력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증가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와 거주의 특성 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노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상호문화시대에 맞는 사회통합정책 개발이 필요함

○ 권역별 FGI 조사에서 중부권중에서 장평동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서비스와 지원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2) 추진 방향

○ 거제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차별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지역건강

보험 가입, 사업장 환경개선, 노동권 보장 등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감독을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과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언어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제시 다문화 정책 기획 및 평가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늘어나게 될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과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을 이질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내국인 인식 개선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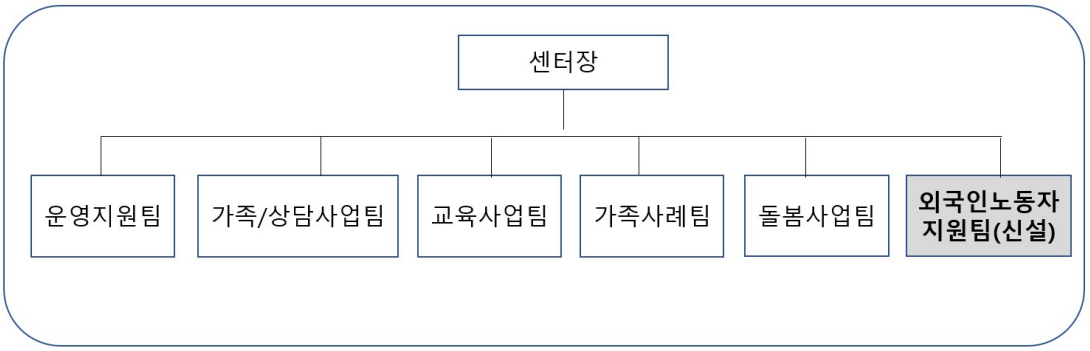
○ 다문화가정만 특화 정책보다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에 차별 없이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공존과 상생'에 초점을 둔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 중요

○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관광서비스 제공

(3) 추진 방안

○ 1안 : 거제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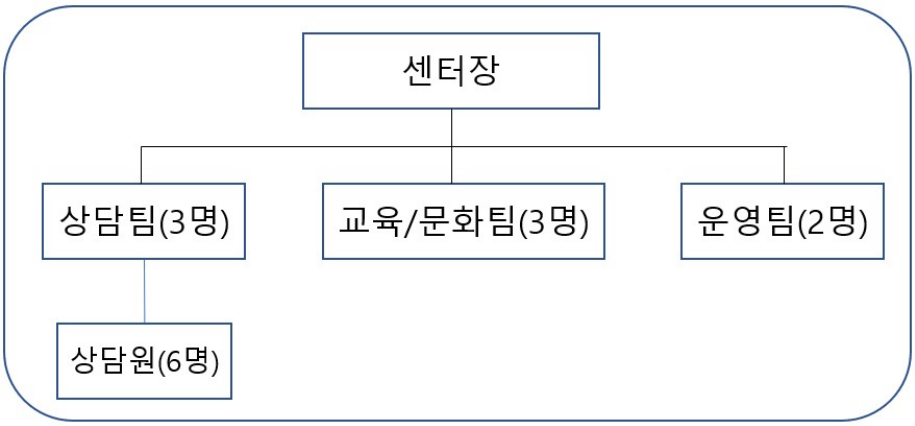
-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 주요사업은 가족돌봄나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통합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 현 기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개인적인 고충과 애로를 지원하는 기능 추가
- 외국인 노동자 지원팀 신설: 직원 3명
- 조직도(안)



[그림 13] 거제시 가족지원센터 내 외국인노동자 지원팀 조직도(안)

○ 2안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고용노동부가 설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및 감독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경남에는 김해, 양산, 창원에 거점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센터 조직구성(안): 총원 15명



[그림 1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조직구성(안)

(4) 활동 내용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생활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주말지원 프로그램 확대
- 생활 법률의 이해, 본국 음식체험, 본국 영화상영 등

○ 외국인 노동자의 귀환 프로그램 운영
- 자발적 귀국의식 함양을 위한 금전관리를 포함한 귀국준비
- 귀국 후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등

○ 거제시민 상호문화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 거제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 다문화주민 인식개선 교육

○ 가족센터 기능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 사랑의 날 및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등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및 지원 정책 수행

○ 산업현장 외국인 복지 강화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주거, 휴식 현황 모니터링
- 노동관련 상담: 임금 및 퇴직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 산업현장별 노동자 커뮤니티 강화 및 자조모임 지원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증진: 안정적인 한국생활 지원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 사업장 안전수칙 및 상황별 응급처치 등 산업재해 예방교육

○ 외국인 지원협의체 구성
-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상가번영회,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공무원, 지역기업 등으로 구성
- 한국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문화적응 과정 운영
  • 쓰레기 분리수거, 노상방뇨 등의 문화적 차이 이해
  • 자율방법대 활동

(5) 예산 : 150,000,000원

○ 1안 : 거제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

- 인건비 : 40,000,000원×3인 = 120,000,00원
- 사업비 : 30,000,000원

○ 2안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고용노동부 예산

10)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확충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여가시설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고현)과 ‘청소년 문화의 집’ (옥포, 고현)이 운영되고 있으나 접근성 및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음

○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성인보다 큰 청소년들에게 저렴하면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고, 모여 있어도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함

(2) 추진 방향

○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권역별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조성’

-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타시군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영등포구는 만 9세부터 만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을 하기 위해 매주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라라랜드’(쉼과 놀이, 소통과 어울림), ‘언더랜드’(아늑한 쉼터에서 다양한 도서와 보드게임, 노래방, 펌프, 농구, 에어하키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모두 무료인 청소년만의 전용 휴식 및 놀이공간), ‘문래, 날다’(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창업·창작활동,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검정고시 및 자격증 등 개인 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 ‘대림 PLAY’(VR, 플레이스테

이션, 노래방이 있는 공간), ‘당산하이’(VR 스포츠, VR피팅, 셀프 스튜디오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음

- 부천에는 스터디, 동아리 활동, 독서, 보드게임, 영화감상(DVD), 휴식, 소통 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입장하여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문화공간 ‘퍼닛’이 있음
- 부천 ‘퍼닛’의 특징은 14~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 자치조직인 청소년 자치조직인 ‘휴새봄’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임. 그리고 휴새봄 활동은 활동 시 봉사시간, 청소년 교류활동, 친목도모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천시의 경우 ‘청소년마을참여연구소’와 ‘청소년카페무지개’를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마을참여연구소는 마을 활동과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전문교육과 청소년이 지역사회(마을)의 욕구를 파악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정기활동을 통해 관련 유관기관에 정책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 주도적 삶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청소년카페무지개는 청소년 자치조직, 마을공동체활동, 성문화 교육, 무지개 초청의 날, 휴먼북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3) 예산 : 민선8기 거제시장 공약사항

11) 지역 내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PC방, 편의점, 쇼핑몰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들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공간, 혹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배우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현재 거제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곳(옥포, 고현)에 있으나, 지역별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고, 지역 내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

(2) 추진 방향

○ 18개 면동 단위로 청소년 쉼터 및 소통 공간 마련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일상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서울 강동구 '강일동 옥상 브리지 사업', 서울 중구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서울 강남구 '은마치안센터를 활용한 청소년쉼터' 등이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옥상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인 평일 6시 이후, 주민센터를 개방해서 동아리 활동 및 일상 쉼터 공간으로 대여할 수 있음

(3) 제도 준비사항

○ 주민센터 유휴공간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기 준비 사항 점검

○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MOU 체결

및 홍보

○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가 필요함

- 청소년 지킴이는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돌보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유지 업무를 맡음
- 지역 방범대 및 지역 내 각종 위원회가 순번을 정해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 중구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 지킴이’를 하고 있음

(4) 구성 및 예산 : 360,000,000원

○ 18개 면동×20,000,000원 = 360,000,000원

12) 지역아동센터 건립 필요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2021년 기준 거제시 초등학교 수는 총 39개이며, 권역별로는 동부권역이 10개, 서부권 7개, 북부권 7개, 남부권 3개, 그리고 중부권역이 12개로 나타났음

○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경남 시·군 18개 중 3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위로 모두 경남 평균보다 높은 밀집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거제지역 특성에 보다 적합한 개인 밀착형 교육 및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

○ 2022년 기준 거제시 권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동부권역이 1,900가구, 서부권 740가구, 북부권 725가구, 남부권 527가구, 그리고 중부권역이 2,505가구로 나타났음

○ 거제시 산업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회복·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다문화 가구의 총 구성원 수는 5,911명이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수는 1,747명으로 나타남

○ 특히, 2022년 거제시 초·중학생 중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004명(초등학생 750명, 중학생 254명)으로 2016년에 다문화 학생 수가 총 573명(초등학생 476명, 중학생 51명)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

○ 2020년 기준 거제시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동부권 3개, 중부권역 5개소, 서부권역 2개소, 남부권역 1개소 분포되어 있음

○ 권역별 FGI 조사에 의하면, 북부권역(연초, 하청, 장목)에 지역아동센터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2) 추진 방향

○ 거제시는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체계 중 하나인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통해 욕구조사 등을 통해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기초학습에 대한 욕구, 아동 가정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으로, 소득과 돌봄 필요성 두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임

○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가 초등학생이 많음과 권역별 초등학교 분포현황을 고려해 볼 때, 북부권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이의 기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북부권역 FGI 조사에서 그나마 북부권역에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함

○ 현재로서는 학교가 인프라가 가장 좋은 상황으로 지역에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학교를 활용해 보는 것 또한 좋은 시도일 것임

-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가 연계하여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주군의 사례를 참고로 제시하였음

(3) 추진 방안

○ 1안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거제시가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함
-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

황임. 예를 들어 경북 영양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광주 하남공립지역아동센터, 경북 의성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등이 운영 중임

- 거제시 특히, 북부권과 유사한 지역여건을 지닌 함안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가. 함안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 함안군, 신협사회공헌재단, 희망TV SBS, 밀알복지재단, KCC, 동국제강의 협력으로 설립
- 함안군은 농어촌 지역이지만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맞벌이 가정이 많고, 군부대 이전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공백의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결혼이민자의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그 중 함안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군북면은 함안군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없던 지역이었음
- 다양한 보호,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업성취 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아동복지교사 2명로 구성되며 총 21명(초등학생 19명, 중학생 3명)으로 운영됨. 학기중에는 10~19시, 방학중 9~18시까지 이용 가능함

○ 2안 :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함

가. 수원시 사례

-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활용한 수원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수원시는 돌봄·방과 후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을 확보함.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우선,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방과 후 여가센터, 집단프로그램실, 조리실 등을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함
- 수원시에 6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나 이것이 첫 공립형지역아동센터임

나. 울주군 “여럿이 함께 지역아동센터”

- 울주군 언양초등학교가 조은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여럿이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음
- 2014학년도 위탁돌봄교실 운영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 언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인 다솜누리 1, 2반과 보조를 맞춰 행복누리반으로 명명하여 운영 중이며 복지 대상 아동들을 중심으로 2021년 현재 29명 돌봄 담당하고 있음
- 학교 내 상주로 아이들의 돌봄교실 활용 편의성 증대와 청결 및 안전 문제 해결, 저녁 7시까지 운영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학교 차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약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과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음

(4) 활동 내용

○ 보호 프로그램

- 일상생활 지도, 급식지도, 위생 및 건강지도 등

○ 교육 프로그램

- 교과학습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문화 프로그램

- 관람, 견학, 체험활동, 방학캠프 등

○ 정서 지원 프로그램

- 개별상담, 보호자 상담 등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5) 예산 : 180,000,000원

○ 1안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
- 기관 운영비 : 180,000,000원
- 센터 설치비 별도 예산

○ 2안 :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 기관 운영비 : 180,000,000원

13) 권익옹호기관 통합운영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거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아동·노인·장애인 영역 모두 돌봄 관련 정책의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로 인해 노인가구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사 방지를 통해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의 인권 및 문화여가 활동까지 보장하여 기초적인 생활해결과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

○ 지역주민의 이러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보장전략 중 하나로 돌봄을 설정하고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지원’을 세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 사업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상담과 법률지원을 실천하며 사회 제도적 문제와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임

○ 그러나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도 보듯, 권리/옹호의 문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에 해당되는 영역임

○ 이에 장애인에 한정되는 권익옹호센터가 아닌 아동, 노인 등 대상을 포괄하여 통합적인 권익옹호 지원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의 경우 경남에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밀양시, 창년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이 존재함. 진주시의 경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하에 있다 2022년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개소되었음

○ 현재 거제시는 사단법인 형태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운영 중이며, 아동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의 형태로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노인 권익옹호에 관한 전문적 기관은 전무한 상황임. 이처럼 지역사회 가장 취약한 대상인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전문기관이 전무하거나 분소의형태, 복지관 등 기관의 일부 프로그램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 있음

⑵ 사업의 추진 방향

○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자체보장사업 전략 중 하나인 함께 나누는 돌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업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지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아동, 노인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인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거제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분리되어 운영되거나 전무한 상태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⑶ 추진 방안

○ 1안. 권익옹호통합사례관리지원단 하에 하나의 팀으로 운영

○ 2안. 한 법인이 통합적으로 운영

○ 3안. 한 건물 내에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권익옹호기관을 두어 네트워크 등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유용하게 함

-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권익옹호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를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홍보, 사례관리, 네트워

크 형성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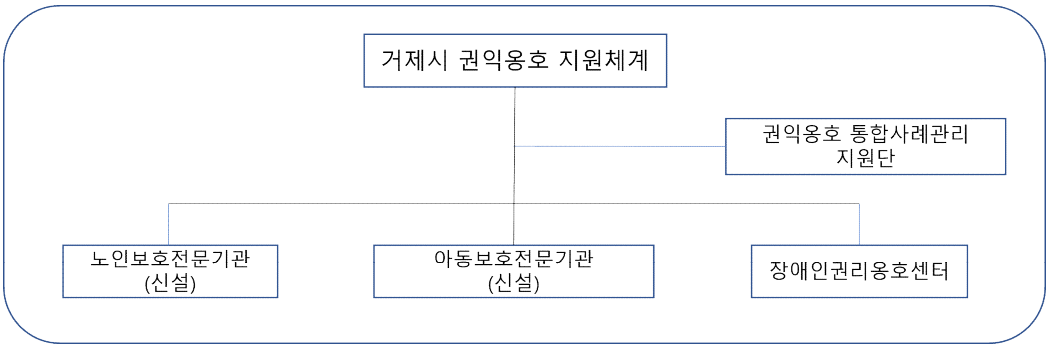
⑷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교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홍보, 아동보호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학대피해・문제행동아동 심리검사・심리치료, 학대행위자 상담・교육프로그램, 가족가능강화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자체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⑸ 사업추진체계

○ 거제시 권익옹호 지원체계(안)



[그림 15] 거제시 권익옹호 지원체계(안)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①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②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둠
- 아동복지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①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②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둠

(6) 예산 : 880,000,000원

○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비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 440,000,000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 400,000,000원

14) 쉼터 통합운영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쉼터 운영은 대상자별로 부처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에는 대상자별 쉼터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거제시의 경우 아동학대쉼터 1개소, 여성 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노인 학대 쉼터, 위기청소년 쉼터 등은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의 전무로 인해 타 지역 이용 및 대기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통합성 확보로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정유지와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에 19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도 10개소가 있음.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분리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알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병원을 지정하여 ‘성·학교폭력 ONE-STOP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거제시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무하여 타 지역(창원, 진주 등) 쉼터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쉼터 통합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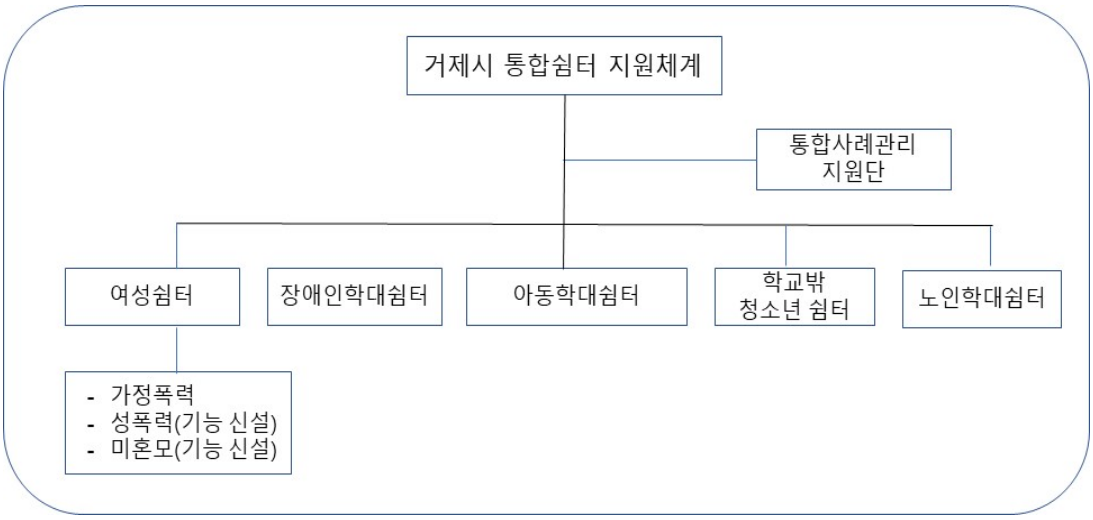
(2) 추진방향

○ 1단계 추진방향

- 거제지역 내 대상자별 쉼터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쉼터 설치 필요. 우선 여성쉼터의 경우 가정폭력과 성폭력 보호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서비스 내용으로는 치유상담, 법률지원, 취업교육 및 훈련, 사회적 자원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이 한 곳에서 원스톱·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 특히, 여성 및 위기청소년의 경우 구체적인 직업 훈련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선택 △직업훈련비 전액과 부대비용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재취업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필요

◯ 2단계 추진방향

- 노인학대와 아동학대, 청소년 쉼터는 대상자 구분 보다는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여 통합 운영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16] 거제시 통합쉼터 지원체계(안)

(3) 사업 내용

○ ONE-STOP 상담지원

- 사회복지사 상주,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사이버 상담 가능
-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적극 지원, 심리 안정을 위한 피해 유형별 전문적 상담 실시

○ ONE-STOP 수사지원

-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 의료진료차 내방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 ONE-STOP 법률지원

- 경찰, 자문변호사, 국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

(4) 구성 및 예산 : 150,000,000원

○ 권역별 통합 쉼터의 우선순위 지역을 고려하여 최소 2개 기관 설치 필요

○ 초기 시범사업으로 여성쉼터 통합 운영(기존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전문인력 배치), 대상자별 쉼터 자원조사 이후 신규 쉼터 통합 운영 추진. 단계별 통합 운영지원 필요

○ 인건비, 운영비 지원

- 1단계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비 : 150,000,000원

(5) 제도 준비사항

○ 거제시 대상자별 통합 쉼터 사업모델 개발

○ 권역별 복지자원 조사 및 권역 선정

○ 거제시 통합 쉼터 조례 마련

15) 중증장애인 단기돌봄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거제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공동생활시설 8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개소가 분포되어 있음

○ 특히, 거제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욕구 각 영역 중에서 장애인돌봄에 대한 욕구가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정책 시급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하며, 양육에서 교육, 치료까지 부모와 가족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또한, 중증장애인은 돌봄이 없으면 곧바로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은 가족에게 있음. 이는 중증장애인 돌봄은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 활동지원사가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임

○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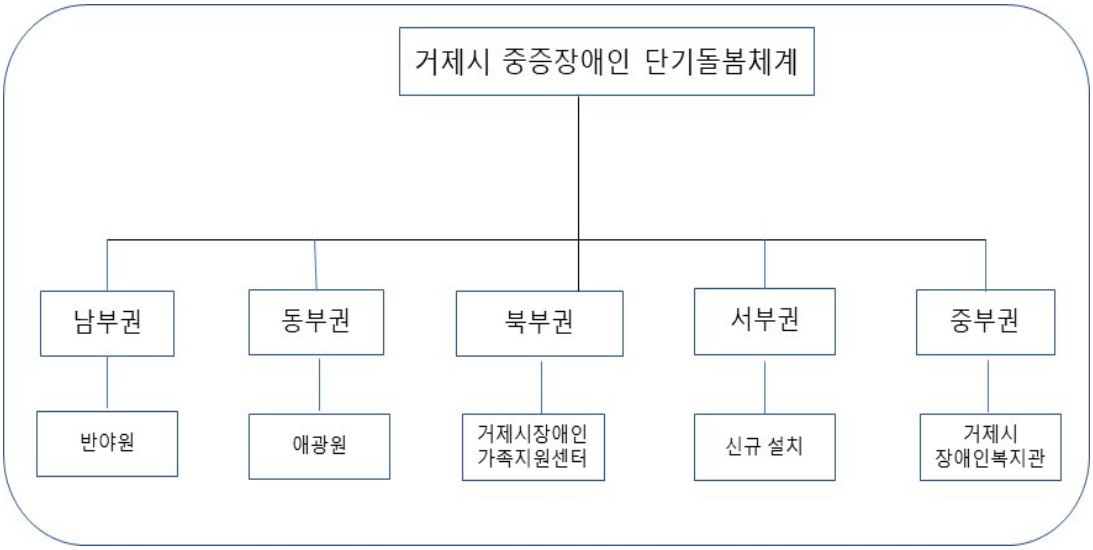
○ 기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센터 및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중증장애인 종합 돌봄체계 구성 필요

○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기존 기능 확대 필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을 위한 지원확대 및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규 기관 설치 필요

○ 기존 거주시설 활용형을 적용, 탈시설 등으로 거주시설 내 발생한 유휴 공간을 활용 필요



[그림 17] 거제시 중증장애인 단기돌봄체계

(3) 사업 내용

○ 24시간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은 ▲치료와 입원 ▲경조사 ▲비장애 형제·자매 양육 ▲보호자 출장과 휴식 ▲돌봄인력(활동지원사)의 긴급 부재와 같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 중중뇌병변 장애인 중 긴급·수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1인당 1회 최대 15일 이내, 연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제시에서도 대상자 및 기간 등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이용자는 식사, 신변처리, 신체관리 등의 일상적인 돌봄 지원과 더불어 전문 간호사 배치로 개인별 일일 건강점검, 처방된 약물관리 및 투약지원, 욕창 관리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

스 구성 필요

○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는 계절학교를 운영하여 파견 또는 위탁 돌봄 실시

(4) 구성 및 예산 : 580,000,000원

○ 권역별로 1개소 센터 설치 필요

- 신규설치 보다는 기존 인프라 유휴공간 활용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남부권 - 반야원 / 동부권 - 애광원 / 북부권 -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부권 - 거제시장애인복지관)
- 유관 기관이 전무한 권역에는 신규 기관 설치 필요(서부권)

○ 초기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기존 기관 유휴공간 운영(전문인력 2명씩 배치)

○ 4개권역×70,000,000원 = 280,000,000원 / 신규설치 1권역=300,000,000원

○ 인건비, 차량비, 주민교육비

(5) 제도 준비사항

○ 거제시 중증장애인 단기돌봄의 사업모델 개발

○ 권역별 복지자원 조사 및 권역 선정

○ 거제시 중증장애인 단기돌봄 조례 마련

16) 치유를 위한 농업복지단지 조성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스트레스・우울감・생활습관성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농촌 환경에 친환경적 농업활동 영역으로 확산 추세

○ 자연 친화적인 삶, 건강・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유농업 연구배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자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유산업을 선도하고, 농촌 활력제고, 강소농 육성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이 필요함

○ 농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생태 생명, 예술과, 치유, 농업과 건강, 약이되고 치료가 되는 치유농업이 필요

(2) 추진방향

○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구성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확대

○ 식량 생산을 포함해 경관농업, 관광농업, 치유농업, 예술농업 등 농촌의 미래 동향의 선도적 대응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치유농업의 방향성 제시

○ 치유를 위한 장기임대 농장 조성방안 마련하여 중장기 계획 마련

○ 감염병 일상화로 피로해진 건강에 대안으로 치유농업 홍보

(3) 활동내용

○ 미래형 스마트 팜을 적용가능한지 검토

○ 치유농업단지 조성 및 콘텐츠 개발・운영

○ 연령・질환별 치유정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거제시민 대상 건강복지 치유프로그램 제공

○ 재배 농산물과 자연을 결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⑷ 구성 및 예산 : 1,200,000,000원

○ 2030거제시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됨

○ 치유농업단지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예산 1,200,000,000원

⑸ 제도 준비사항

○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네델란드・일본 선진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17) 쉼과 힐링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1) 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산림복지 관련 정책의 통합적 비전 설정과 유기적 추진이 필요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민간참여 유도로 새로운 산림복지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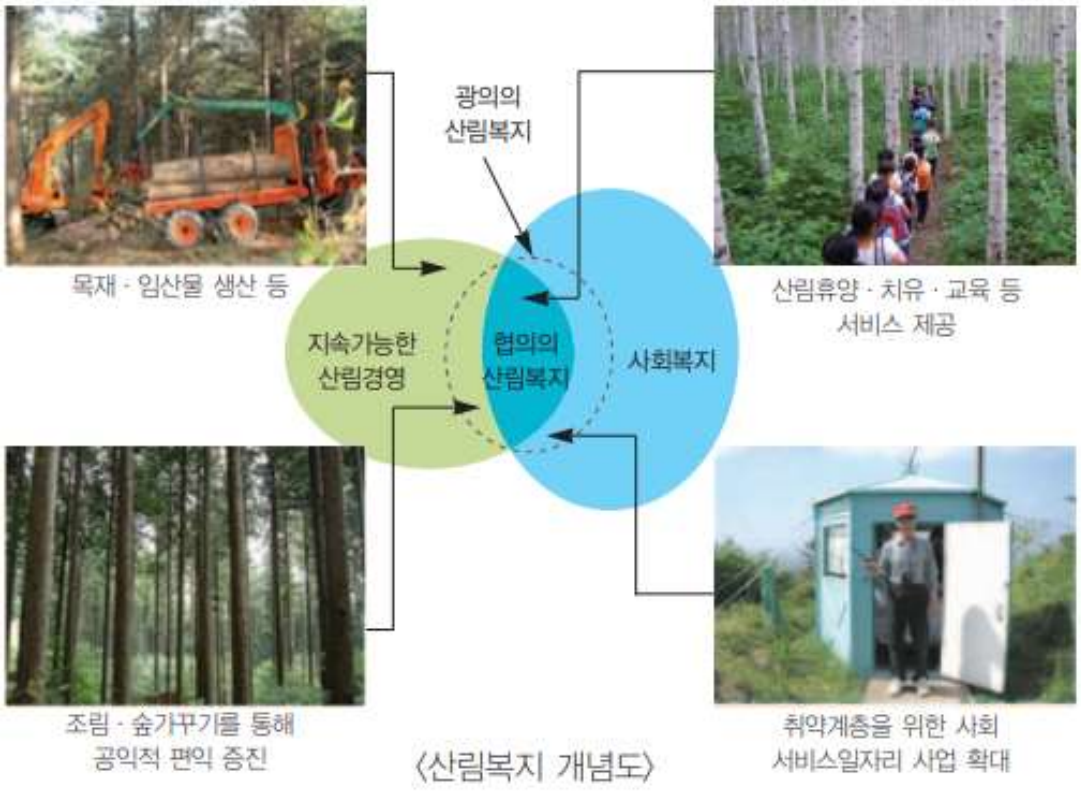
[그림 18] 산림복지 경제 체계

출처 : 2013 산림복지종합계획, 산림청

(2) 추진방향

○ 2030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추진

○ 숲을 활용한 환경성, 생활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를 통해 시민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산림문화 휴양 공간 확대



[그림 19] 산림복지 개념도

출처 : 2013 산림복지종합계획, 산림청

(3) 사업내용(2030 거제시중장기발전계획 내 세부과제)

가. 노자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 사업위치 : 동부면 구천리 거제 자연휴양림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추정예산 : 50억원(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 사업목표 : 산림복지단지 유치, 무장애 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마을 육성

○ 사업규모 : 80ha(현 자연휴양림 규모 확대)

○ 주요시설 :

- 산림휴양구역: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등

- 산림치유구역: 치유센터, 치유숲길, 숲체험장, 산림욕장 등
- 산림문화구역: 목공예실, 생태공예실, 임산물판매장 등

○ 사업내용

- 장애 없이 이동하는 ‘무장애 치유의 숲’ 조성
  - 치유숲길, 맨발 숲길, 힐링가든, 숲속 도서관, 명상센터 등 조성
  -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는 낮은 경사의 산책길 조성
  - 산림테라피센터 유치를 통한 산림교육 실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산림교육 실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 노자산 일대 마을 중 공모를 통한 산림문화체험마을 운영
  - 산림복지단지 연계 헬스투어 활성화휴양림에서 집합과 해산 시 건강체크
  - 산림욕, 산림치유 놀이, 숲길 걷기, 명상, 각종 치유프로그램 운영
  - 인근 식당과 마을에 먹거리와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 확충
  - 치료효과 검증 위해 산책로에 자동 건강체크기구 배치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지역민 고용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재교육장, 영유아목재놀이터, 목공제작소, 다목적 강당 활용
  - 시민·학생 대상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림과 목재를 활용한 기후 위기 각복 프로그램 운영
  - 목재체험장 통해 목공예 체험, 목조주택 기초과정 교육
  - 전문 목수가 운영하는 목조주택 체험학교 운영

나. 산림문화 치유공간 확대

◯ 사업위치 : 삼거동 치유의 숲 등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추정예산 : 80억원(국비 40, 도비 6, 시비 34)

◯ 사업목표 : 기존 계획 외에 추가 산림문화 치유공간 2개 조성

◯ 사업내용 :

- 삼거동 치유의 숲 60ha 조성
  - 요가・명상・캐노피워크 등 산림 지형 활용 헬스투어 운영
  - 테마별 도보 코스 운영 등 힐링 산책로 활성화
  - 산책구간 및 산책방법 자동 맞춤 제공 인공지능시설 도입

-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
  - 도심 접근성 좋은 위치 선정하여 추가 조성
  - 숲속에서 체험활동과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고용을 통한 유아숲체험원 운영

- 개인별 치유프로그램 시행
  - 건강기록(인바디), 질병 유형 등 빅데이터 수집
  - 예방 및 개선효과 입증된 치유프로그램 개발
  - 기술 활용한 개인에게 맞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 공유공방(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목공) 운영
  - 연계 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참고문헌

거제시 (2022). 제5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서.

거제시 (2022).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경남연구원 (2022). 경상남도 제5기 지역사회복장계획.

박상미, 엄태완, 임혁, 박해긍 (2021). 정신건강서비스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박준환, 김규호 (2020).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2021).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산림청 (2013). 산림복지종합계획.

염동문, 조혜정, 문종욱, 장정은, 황현녀 (2021). 2021 창원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에 관한 연구. 창원장애인지역사회전환센터.

염형국, 김도희 (2018),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법제화를 위하여. 2018 지원주택제도와 추진위원회 발대식 토론회 자료집.

전교연, 이루리, 박우리, 황우석, 이용주, 오홍석, 김용진, 이해국, 노성원 (2017).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현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독정신의학, 21(2), 115-1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2030 국민건강종합계획. 보건복지부.